

# 농업기술회보

21세기 우리농업 · 농촌 · 농민을 선도하는 정보지

2023년 2호

| 제60권 2호 통권 593호 |

인터뷰 남산농원 박명준 · 정미순 대표 | 축석농장 박행길 대표  
특집 농정 공감대 형성 위한 한국농업 미래 시나리오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전략  
칼럼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관점의 전환' 고려할 때



ISSN 2586-5544



사단  
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뿌리에서 미래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본회 창립의 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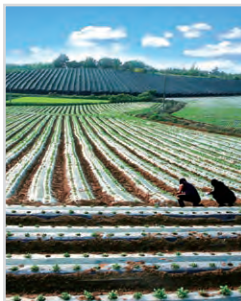
회원들의 자조자립 정신으로 세운 농업기술진흥관 앞,  
상허 유석창 회장의 본회 창립 정신과  
성천 류달영 회장의 새역사 개척 정신을 되새깁니다.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를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과학적 전문화를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 복지화를

이루기 위한 지난 60여 년의 노력은  
새마을 운동의 뿌리가 되고  
1970년대 녹색혁명과 1980년대 백색혁명으로 이어져  
오늘날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세우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해  
농업인의 행복을 위해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모두가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회 창립의 초심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b>인터뷰</b>	02	다시 만난 수상자 · 남산농원 박명준 · 정미순 대표
	06	특별한 당신 · 축석농장 박행길 대표
<b>특집</b>	10	특집 I · 농정 공감대 형성 위한 한국농업 미래 시나리오
	18	특집 II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전략
<b>칼럼</b>	24	·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관점의 전환' 고려할 때(강선일 한국농정신문 기자)
<b>기술동향/ 안전동향</b>	28	기술동향 I · 고온기, 파프리카 품질 높이는 비결은 '뿌리 냉방'
	32	기술동향 II · 지하수위 높은 시설재배지 토양수분 관리 방법
	36	기술동향 III · 고구마 기부병의 특성과 대응법
	42	안전동향 · 농번기 주의 필수! 농업기계 안전이용법
<b>당선 인사말</b>	48	· 우리 협회 회원 조합장의 포부와 연대의 인사말
<b>스포츠라이트</b>	57	· 2023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교육사업 참가 후기 - 제1기 전직창업농 성공을 위한 귀농탐색과정
<b>News</b>	59	농업 관련 단신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NH농협 / 한국농어촌공사
	62	창작마당 · 뿌리의 노래(김성순 통일회원)
	63	협회소식



### 표지 이미지

작품명 | 귀농의 꿈

사진작가 | 전희철

촬영장소 | 전북 부안군 죽산면

사진제공 | 한국농어촌공사(제10회 농촌경관사진공모전 수상작)

# 독보적인 기술과 신용을 철칙으로 시련에도 피워온 꽃길

» 남산농원 박명준·정미순 대표

2011년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농업기술상 본상을 수상한 남산농원 박명준·정미순 대표는 여전히 독보적인 품질로 국내외 시장에서 공고한 신뢰를 얻고 있다. 30여 년을 한결같이, 정성으로 키우고 연구하며 정직하게 화훼농업의 길을 개척해온 부부 대표는 시름이 깊은 화훼산업에 선도농가 모델로서 변함없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사진 | 편집실



남산농원 박명준 대표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 남산농원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롯데백화점 등에서 팝업스토어, 지자체 우수농특산물 대전에 참여하며 품질 우수성을 입증해왔다. (사진 중앙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동평 당시 영암군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출하를 앞둔 카네이션. 남산농원은 글라디올러스, 알스트로에메리아 등 다종을 재배하고 있다.

## 전남 영암의 작은 농가가 일본에 직접 수출하고 생산자 코드를 획득하기까지

봄 햇살을 가득 머금은 전라남도 영암의 남산농원에는 우아한 향기가 가득했다. 박명준·정미순 대표는 화훼만 8천 평 규모로 시설하우스 6천 평과 노지 2천 평에 금어초·프리지아·스프레이 국화 등을 생산하고 있다. 벼·보리 신품종과 발작물 등도 작지 않은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타격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실하게 화훼농업을 지속하고 있다. 10대 시절부터 수출상담회 등에 따라 나서며 도움을 주었던 큰아들 박주환 이사는 가업을 잇고자 새로 원예학을 전공하고 일본 유학을 하여 남산농원의 무역 행정과 해외 마케팅을 담당해왔다. 딸 박지혜 이사는 현재 국내 백화점 매장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 초 타향인 영암에서 무일푼으로 겨우 논 몇 마지기를 빌려 농사를 시작했던 박명준 대표는 마을 굿은일에 나서 이장을 맡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농한기에도 성실하게 일해 소득을 얻고자 아내 정미순 대표와 조사하고 논의하여 1990년대 초 안개꽃 재배로 농업 방향을 전환했다. 주변의 걱정이나 비웃음에도 매일 밤낮을 하우스에서 살다시피하여 기존 벼농사보다 몇 배 높은 수익을 얻은 부부는 이를 농지 구입과 시설에 투자하였고 꽃의 종류도 늘려나갔다. 국내시장 상황이 좋았으나 판로 확보의 중요성을 내다본 박명준 대표는 꽃 농사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기술과 시장 조사에 나섰고, 국화 재배 시 일본에서 최고 경지로 여기는 '상잎(화경이 작고, 잎은 위쪽은 크고 넓으며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 기술력 등으로 일본 유명육종회사인 정홍원과 인연을 맺으며 기술 교류를 하기도 했다. 코트라 무역수출상담회에도 나섰는데, 공산품 업체 사이 홀로



일본 최대 규모 화훼공판장인 FAJ에 직접 수출하고 일본농가와 동일하게 생산자 코드를 보유하고 있다.(좌측 박명준 대표와 아들 박주환 이사)



러시아 수출상담회의 박명준·정미순 대표의 모습. 1990년대부터 네덜란드, 일본의 유통회사를 찾아가는 등 기술과 판로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서 행동해왔다.

농업 부스로 참석하였으나 러시아를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바이어들에게 품질을 인정받고 수출과 기술제휴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산국가와의 행정적 문제, 작은 농가가 해결할 수 없는 법과 제도 등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동시에 일본시장 공략에도 힘쓴 그는 수입 규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FAJ(Flower Auction Japan)에 배가 아닌 비행기로 꽃을 직송하였다. FAJ에 수출하면 그 자체로 품질을 인증받는 것과 같아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몇 년간 양질의 꽃을 한 번의 약속도 어기지 않고 보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FAJ에 농가가 직접 상장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냈고, 이후 신용과 품질을 지속하여 일본 농업인과 동일한 생산자 코드를 보유하게 되었다.

### 함께 잘살기 위해, 꺾이지 않고 새 희망을 피우다

생산과 판로만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 등 농장 경영, 실험포장 운영·연구, 품종전시회 개최 등 다방면에 진력해온 박명준·정미순 대표는 우리나라 농업 관련 기관, 우수 대학 교수들과 재배 생리, 병충해 등 이론과 기술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지역 농가와 나누면 함께 잘살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2010년 수출법인 호티피아를 설립했다. 전남국화산학연협력단의 기술전문위원이기도 했던 박명준 대표는 지역 30여 농가와 협동 생산, 공동 판매 체제를 갖추고 지자체와 힘을 합쳐 설립 반년 만에 역대 수출 실적을 올렸다. 농가들은 안정된 판로와 가격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후 일부 농가가 약속했던 수출물량을 국내로 유통시켜 호티피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남산농원은 호남원예고등학교와 MOU를 맺고 전문 기능 협업을 위한 교육 활동에 협력하는 등 기술 전수도 병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발행한 <구근화훼류 육성품종>에 남산농원이 육성품종구입처로 게재되어 있다. 남산농원은 프리지아 국내 비인기 품종의 수출에 성공하여, 우리 품종이 해외에서 사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약속을 중시하는 일본은 한 번 신뢰가 깨지면 수출길 자체가 사장되는데, 남산농원은 다른 브랜드로 다시 들어오면 기회를 준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시크릿가든’ 브랜드를 만들어 회사 등록을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진심을 보이는 귀농 농가나 화훼 농가에 기술을 나누고,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교육 관련 활동은 보이지 않게 계속하였다. 가난으로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을 검정고시로 이수한 박명준 대표는 정미순 대표와 농업마이스터대학 4년 과정을 이수하는 등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박명준 대표는 프리지아를 우리 품종으로 수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2010년대 농촌진흥청 등에 수차례 의견을 전하여 ‘골드리치’와 ‘씨니골드’를 생산하였고 수출을 성공시켰다. 토경의 힘을 십분 살리고 화학 비료와 제초제를 쓰지 않는 기술력,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마케팅 능력 등이 기반이 되었다. 일본 내 백화점 등에서 사전 계약으로 꽃을 재배하는 등 꾸준히 최상의 품질을 인정받아온 남산농원은 2021년 FAJ가 주관한 품질 선호도 조사에서 다년간의 신용과 품질 등을 평가받아 해외 선진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수상하였다.

“성공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고자 하는 정신력과 발상의 전환, 정직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루어 놓은 일들이 받침이 되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회에도 훗날 제가 일궈온 부분이 활용될 수 있다면 기꺼이 바탕이 되고 싶습니다.”

태풍에 꽃이 쓰러지고, 코로나19로 키운 꽃들을 갈아엎고, 밤낮없이 일해 손목과 발목이 망가져도 끝내 꽃을 길러낸 박명준·정미순 대표는 지금도 새 희망을 피워내고 있다.

# 농가들이 더 쉽고 지속 가능하게 유기농업을 할 수 있도록

»» 축석농장 박 행 길 대표(본회 대의원)

우리 협회 대의원(부산·경남연합회 진주시지회)인 축석농장 박행길 대표는 유기농업 선도농가로, 일찍이 실제 영농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용기술을 각지 농가에 전수하여 유기농업을 확산시켜왔다. 지금도 매해 달라지는 기후, 작물 생육, 시장 등 농업 환경을 살피는 박행길 대표는 나이가 많아도 농업기술 연구를 계속해 다른 농가가 쉽게 지속적으로 유기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전했다. 글·사진 | 편집실



축석농장 박행길 대표

## 유기농업에 인생 바친 살아 있는 전설로 칭해지기까지

경남 진주 축석농장 박행길 대표는 아내 이순선 씨와 약 30년을 유기농법으로 농사 지어 꾸준히 높은 수확량을 달성해온 선도농가다. 원래 도시에서 건축가로 일하며 새마을운동도 했던 박행길 대표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부모님이 계신 진주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귀농하였다. 40대에 처음 농업인의 길에 들어선 그는 농사 경험이 없어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평범하게 배추와 오이로 밭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잘 모르니 주위 사람들이 ‘비료를 많이 줘야 한다’, ‘약을 쳐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해주면 그대로 따라 했지요. 아무 의심 없이 농약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서점에 가서 농업에 관한 책을 찾아보다가 자연농법에 관한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판단한 박행길 대표는 1985년 우리 협회에 가입하였고, 한국유기농업협회에도 가입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직접 친환경 유기자재를 연구하였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한 결실을 거둔 박행길 대표는 주변 농가에 유기농법을 적극 권유하였고, 소문이 퍼져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해 경주와 안동, 전라도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지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기술 전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

“농사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유기농업을 하면서 친환경 약을 아무리 써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잦았어요. 거름을 너무 많이 줘서 시들기도 하고 농산물 색깔이 검게 변해서 판매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배우고 연구하면서도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이들이 쉽게 농사지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1994년 친환경 농산물 국가인증농장으로 인정 받으며 유기농산물 생산을 확산시킨 박행길 대표는 1999년 진주시 최초의 친환경농산물생산자연합인 ‘들뢰수’를 만들었다. 2016년 ‘다담에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며 이어진 이 조직은 수도권의 학교급식과 백화점, 마트 등으로 판로를 개척해왔으며 현재도 축석농장과 25여 농가가 함께 힘을 합쳐 활동 중이다. 축석농장은 유기농산물 생산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의 종합식품계열사) 자체



친환경 농산물 국가인증농장을 운영하며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기농업 기술을 확산시켜온 박행길 대표



‘유기농 토경 파프리카는 아삭함이 다르다’고 한 박행길 대표는 재배 시 맛이 덜해도 빠르게 성장시키기보다는, 천천히 자라 맛과 향, 영양을 듬뿍 머금 수 있도록 한다.



시설하우스 바닥 비닐 안에 짚을 넣어 부패시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광합성 작용을 촉진해 품질을 높이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인 ‘산들내음’ 지정농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박행길 대표는 2009년 제5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협회장 표창, 2012년 제53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2018년 (사)경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관 제8회 친환경농업인대회 생태농업대상 우수상 등을 받았다.

## 현장서 겪은 시행착오를 생생한 교과서로, 인내하고 뜨거운 결속 다지며 유기농업 전문인이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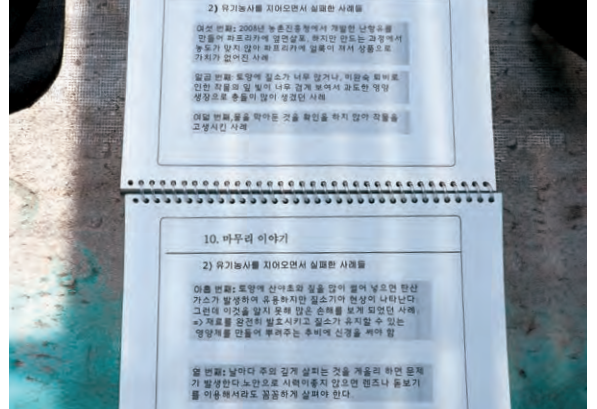
경남 진주는 우리나라에서 시설하우스가 처음 도입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박행길 대표는 농사 초기에 다른 농가보다 앞서 대나무로 시설하우스를 지었고, 주변 농가에도 시설하우스를 만들어주며 확산시켰다. 축석농장은 현재 1,500평으로, 대표 부부 두 사람의 인력으로 주작목인 고추와 파프리카가 각각 500평 가량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과거 멜론과 참외, 미니파프리카 등도 연작장해나 충·균 피해 없이 수확량이 매우 커 유기농법 잡지 등 언론에 소개되었는데, 특히 미니파프리카는 연 10톤 생산에 역대 수익으로 2018년 채널A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유기농업으로 뚜렷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 작물 생육, 기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도전한 덕분이었다.

“작물을 정할 때 ‘홍수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주변 농가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유행이라고 무작정 따라가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박행길 대표는 하우스 바닥의 비닐 안쪽에 짚을 묻어 놓았다. 짚을 토양에 섞어 검은



다양한 병충해 해결 방법 중 총채벌레 방제를 설명하고 있는 박행길 대표. 유기자재를 12시간 물에 담가두었다가 작물에 뿌려주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유기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박행길 대표가 직접 제작한 교재. 자신의 실패와 성공 사례가 다른 농가의 성장 기반이 되도록 돕고 있다.

비닐을 덮어 부패시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광합성 작용을 촉진해 작물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품질이 좋아진다. 이산화탄소 생성을 위한 가스 비용을 연간 1,500만 원 절감해 경제적인뿐 아니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한편, 박행길 대표는 증식력과 저항성이 강한 총채벌레 방제 방법에 관해서도 밝혔다. 현재 쓰는 유기농업자재는 ‘총채썩’으로, 자재를 물에 담가 12시간을 둔 뒤 작물 위아래로 골고루 뿌려준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토양에 뿌린 뒤 물을 흠뻑 준다.

“이렇게 미생물을 활용하면 토양 오염도 막고 파프리카 모양과 색도 확연히 좋아집니다. 기후 변화로 병충해가 매년 다르고 방제 방법도 달라져 계속 실험해야 해요. 유기농으로 농사지어서 잘 안 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

박행길 대표는 그간 만들어온 교재에 수많은 병충해 종류와 방제 방법을 담아 놓았지만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야말로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혼자만 성취하는 과정이 되지 않도록, 함께 발전하고 성공하는 토대가 되도록 앞으로도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제가 실수, 실패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해주면 머리에 팍팍 들어온다고 해요(웃음). 지금도 ‘강사님이 시킨 대로 하니 농사가 잘됩니다’라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뿌듯하지요. 수확을 일주일 앞두고 작물이 모조리 시든 적도 있고, 한 톨도 못 번 적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 해요. 유기농업은 인내해야 성공합니다. 농업인들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전문인들이 되면 부자농 실현의 꿈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협회 회원을 비롯한 농업인들이 유기농법 영농 정보를 공유하며 뜨거운 결속을 다져가기를 희망합니다.”

# 농정 공감대 형성 위한 한국농업 미래 시나리오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 농정 비전과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가치와 농업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이 때때로 간과되기도 한다. 또,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은 협의를 통해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논의의 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본 연구는 국민(전문가·농업인·일반국민)이 선호하는 가치와 농업의 미래 모습이 다양함을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선호하는 가치에 기반한 미래 모습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중장기 농정의제를 제안했다.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 연구보고서 '2040 한국농업 미래 시나리오 연구'(2023. 2. 16.)

## 연구 목적

국민 개개인은 원하는 가치가 다양하며, 미래에 원하는 농업의 모습 역시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이 원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며, 얼마만큼 다를까?'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고자 시작했다. 이를 알아야만 어디서 어느 정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이해·조정 과정의 거침으로써 공감대를 이룬 농업의 미래 모습 달성을 위한 농정을 떠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정 목적이 다변화·복잡화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에 기반한 농업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대내외 여건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커진 대내외 여건 속에서 ① 국민(전문가·농업인·일반국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가치에 기반한 다양한 2040년 농업의 미래 모습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② 대내외 여건이 미래 모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③ 미래 모습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별 중장기 농정의제를 제시한다.

또한, 선호하는 가치, 농업의 현재 모습, 농업의 실현 가능한 모습, 선호하는 미래 농업 모습 등에 대해서 ④ 국민들의 생각이 얼마만큼 다양한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농정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내용과 방법

선호가치에 기반한 농업 미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 일반적인 가치 대립축을 제시한 후, 15개의 가치 대립축별로 상호 대립하는 농업의 모습을 2개씩, 총 30개로 제시한다.
- 가치 대립축별로 현재 농업의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지(현재 모습),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실현될 것 같은지(가능미래), 미래에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선호미래)를 전문가·농업인·일반국민 등 3개 그룹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 전문가·농업인·일반국민의 선호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군집 분석을 통해 각각 3개씩, 총 9개 군집을 도출하고, 개별 군집의 특성을 반영한 9개의 농업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앞서 도출한 농업 미래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들을 분석하고, 중장기 농정의제를 제시한다.
- 선호하는 농업의 모습으로 구성된 농업 미래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동인 25개, 대내동인 22개, 농업의 모습 30개 등 총 77개의 동인을 선정한다.
- 설문조사를 통해 동인이 농업의 모습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분석하고, 농업 미래 시나리오별로 동인의 중요도를 제시한다.
- 농업 미래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 특징과 중요도가 큰 동인들을 고려하여 중장기 농정의제를 제시한다.

## 연구 결과

현재 모습, 가능미래, 선호미래 각각에 대해 개별 그룹 내에서 응답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1]을 보면, 예를 들어 전문가의 33%는 현재 농업의 모습이 '농업 생산 중심의 소수의 규모화된 대농·기업농 중심'이라고 하였고, 53%는 '소득원이 다양한 다수의 중소가족농 중심'이라 하였다. 농업인의 44%는 전자, 44%는 후자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는 객관적으로 한 가지만 존재한다. 그러나 한 가지 객관적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개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성장', '효율'이라는 가치를 중시

# 특집 I

## 농정 공감대 형성 위한 한국농업 미래 시나리오

하는 응답자와 ‘분배’, ‘형평’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응답자 간에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 다르게 인식 되는 것이다.

[표 1] 전문가와 농업인이 인식하는 농업의 현재 모습 비교

가치 대립축별 농업의 모습		전문가		농업인	
A	B	A 응답(%)	B 응답(%)	A 응답(%)	B 응답(%)
농가 개별 역량에 기반한 시장 경쟁	농업 관련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있어 농업인 간 협력과 참여	72	21	61	29
외국인·이민 노동자 적극 고용 및 수용	외국인·이민 노동자 제한적 고용 및 수용	44	51	51	37
디지털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노동력 대체, 생산성 극대화	디지털기술의 안정적·점진적 활용을 통한 노동력 보완, 안전 전제 기술 활용	26	56	44	41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바이오기술 (예: GMO 농식품)의 선제적·적극적 활용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바이오기술 (예: GMO 농식품)의 점진적 도입	24	63	39	43
공공기관 주도의 연구개발 및 기술·성과 확산	농기업, 농업경영체 등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및 기술·성과 확산	92	3	52	33
현 세대를 위한 환경·자원의 효율적 이용 우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자원 보전 우선	91	5	52	35
농업 생산비 최소화 (이윤 극대화) 관점의 에너지 활용	지속가능성 제고 관점의 재생에너지 적극 생산 및 활용	92	5	55	32
농업 생산 중심의 소수의 규모화된 대농·기업농 중심	소득원이 다양한 다수의 중소가족농 중심	33	53	44	44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가치 추구 (물질적 풍요, 경제 성장)	농업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가치 추구(공동체 활성화, 경관 및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87	5	58	31
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 성장 촉진)	먹거리(식량) 안보 향상 (공급능력, 구매능력, 품질 및 안전성 등)	41	40	40	43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산지 중심의 규모화된 생산과 전국 소비지로의 유통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위한 지역 내 생산 및 소비	86	5	53	33
경쟁(입찰, 공모)을 통한 정부 정책 지원 대상 선정과 집중	고령 영세농·신규 취업농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68	19	42	41
농업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해 농업인 전반에 지원 확대	농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영세 취업농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여 분배 촉진	91	3	60	26
국가 주도·중앙정부 중심의 농정 강화	농정에 지역적 특성 반영하고 지자체 및 농업인의 참여 농정 강화	87	7	43	42
정부 정책과 사업이 주도하는 농업	민간(농업인, 농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농업	90	5	47	36

주1) 응답자 중 어느 가치에는 치우치지 않고 중립(0점)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 '100-(A응답+B응답)'이며, 표에는 제시되지 않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2022년 5월, 7월, 9월)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룹 간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디지털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노동력 대체, 생산성 극대화'와 '디지털기술의 안정적·점진적 활용을 통한 노동력 보완, 안전 전제 기술 활용'의 두 가지 농업의 모습 중에서 전문가는 66%, 농업인은 48%, 일반국민은 37%가 전자의 모습을 선호한다. 반대로 전문가의 22%, 농업인의 44%, 일반국민의 47%는 후자의 모습을 선호한다.

[표 2] 전문가·농업인·일반국민 간 가치 대립축별 농업의 선호미래 모습 비교

가치 대립축별 농업의 모습		전문가		농업인		일반국민	
A	B	A 응답(%)	B 응답(%)	A 응답(%)	B 응답(%)	A 응답(%)	B 응답(%)
농가 개별 역량에 기반한 시장 경쟁	농업 관련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있어 농업인 간 협력과 참여	21	74	31	59	9	77
외국인·이민 노동자 적극 고용 및 수용	외국인·이민 노동자 제한적 고용 및 수용	68	15	57	34	38	40
디지털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노동력 대체, 생산성 극대화	디지털기술의 안정적·점진 적 활용을 통한 노동력 보 완, 안전 전제 기술 활용	66	22	48	44	37	47

# 특집 I

## 농정 공감대 형성 위한 한국농업 미래 시나리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바이오기술(예: GMO 농식품)의 선제적·적극적 활용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바이오기술(예: GMO 농식품)의 점진적 도입	45	44	39	51	24	58
공공기관 주도의 연구개발 및 기술·성과 확산	농기업, 농업경영체 등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및 기술·성과 확산	31	44	43	46	27	48
현 세대를 위한 환경·자원의 효율적 이용 우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자원 보전 우선	5	77	26	67	19	62
농업 생산비 최소화(이윤 극대화) 관점의 에너지 활용	지속가능성 제고 관점의 재생에너지 적극 생산 및 활용	5	85	28	64	17	64
농업 생산 중심의 소수의 규모화된 대농·기업농 중심	소득원이 다양한 다수의 중소가족농 중심	35	41	37	53	28	51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가치 추구(물질적 풍요, 경제성장)	농업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가치 추구(공동체 활성화, 경관 및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7	70	28	64	28	52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수출 확대, 성장 촉진)	먹거리(식량) 안보 향상(공급능력, 구매능력, 품질 및 안전성 등)	13	64	23	68	17	66
생산성·효율성 제고 위한 주산지 중심의 규모화된 생산과 전국 소비지로의 유통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위한 지역 내 생산 및 소비	29	52	43	48	31	48
경쟁(입찰, 공모)을 통한 정부 정책 지원 대상 선정과 집중	고령 영세농·신규 취업농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28	47	27	63	29	49
농업에 대한 비과세 확대해 농업인 전반에 지원 확대	농업에 대한 과세 확대하고 영세 취약농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여 분배 촉진	30	53	49	40	37	39
국가 주도·중앙정부 중심의 농정 강화	농정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 및 농업인의 참여 농정 강화	11	72	25	68	17	60
정부 정책과 사업이 주도하는 농업	민간(농업인, 농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농업	17	54	34	55	25	49

주1) 응답자 중 어느 가치에는 치우치지 않고 중립(0점)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 '100-(A응답+B응답)'이며, 표에는 제시되지 않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2022년 5월, 7월, 9월)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룹 내에서 현재 모습과 선호미래 간에, 가능미래와 선호미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문가는 ‘정부 정책과 사업이 주도하는 농업’과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농업’ 중 전자를 현재 모습(절댓값 2.54/5점 만점)과 가능미래(절댓값 0.48/5점 만점)로, 후자를 선호미래(1.11/5점 만점)로 제시하였다. 농업인은 ‘농업 생산비 최소화 관점의 에너지 활용’과 ‘지속가능성 제고 관점의 재생에너지 적극 생산 및 활용’ 중 전자를 현재 모습(절댓값 0.73/5점 만점)으로, 후자를 가능미래(0.83/5점 만점)와 선호미래(1.3/5점 만점)로 제시하였다.

어떤 그룹의 선호미래를 중심으로 농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그룹 내 서로 다른 선호미래를 농정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그룹 간과 그룹 내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협의하고 이해하며 조정해 나가야 할지가 숙제로 남는다. 현재 모습으로부터 선호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3개 그룹에 대해 각각 3개씩의 농업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 <군집별 농업 미래 시나리오>

- 전문가 군집1 (33.0%): 기술 적극 활용·다원적(중)·민간 주도 혁신 농업
- 전문가 군집2 (34.0%): 기술 안정 활용·다원적(강)·포용적 농업
- 전문가 군집3 (33.0%): 기술 활용·가치중립적 농업
- 농업인 군집1 (43.4%): 기술 활용·가치중립적 농업
- 농업인 군집2 (14.2%): 기술 적극 활용, 정부 역할 중시, 경쟁력 강화 농업
- 농업인 군집3 (42.4%): 협력, 참여, 포용, 민간 중심의 다원적 농업
- 일반국민 군집1 (59.8%): 다원적 기능 지향·가치중립적 농업
- 일반국민 군집2 (17.0%): 기술 적극 활용,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조화된 경쟁력 있는 농업
- 일반국민 군집3 (23.2%): 협력, 참여, 포용, 민간 중심의 다원적 농업

# 특집 I

## 농정 공감대 형성 위한 한국농업 미래 시나리오

[표 3] 전문가·농업인·일반국민의 선호미래 시나리오

농업의 모습 A	전문가1	전문가2	전문가3	농업인1	농업인2	농업인3	일반국민1	일반국민2	일반국민3	농업의 모습 B
기술 적극 활용·다원적(중)·민간주도 혁신농업	1.24	3.26	0.44	0.22	-1.75	2.54	1.28	1.58	2.74	농업 관련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있어 농업인 간 협력과 참여
외국인·이민 노동자 적극 고용 및 수용	-2.38	-1.61	-0.88	-1.47	-2.38	0.20	0.14	-1.13	0.80	외국인·이민 노동자 제한적 고용 및 수용
디지털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노동력 대체, 생산성 극대화	-3.38	0.03	-1.68	-1.04	-3.00	1.79	0.15	-2.31	2.05	디지털기술의 안정적·점진적 활용을 통한 노동력 보완, 안전 전체 기술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바이오기술(예: GMO 농식품)의 선제적·적극적 활용	-1.85	2.19	-0.97	-0.47	-2.89	2.23	0.81	-1.32	2.22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바이오기술(예: GMO 농식품)의 점진적 도입
공공기관 주도의 연구개발 및 기술·성과 확산	1.97	0.13	-0.35	-0.59	-2.37	1.54	0.19	-0.68	2.83	농기업, 농업경영체 등 민간주도의 연구개발 및 기술·성과 확산
현 세대를 위한 환경·자원의 효율적 이용 우선	3.18	2.84	0.68	1.23	-2.72	3.19	0.73	0.25	3.03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자원 보전 우선
농업 생산비 최소화(이윤 극대화) 관점의 에너지 활용	3.15	3.48	0.94	0.90	-3.21	3.21	0.97	-0.12	3.08	지속가능성 제고 관점 재생에너지 적극 생산 및 활용
농업 생산 중심의 소수의 규모화된 대농·기업농 중심	-1.47	2.06	0.24	0.31	-3.18	1.93	0.27	-0.72	2.66	소득원이 다양한 다수의 중소가족농 중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가치 추구(물질적 풍요, 경제 성장)	2.06	3.03	0.26	0.91	-3.21	3.19	0.55	-1.65	2.58	농업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가치 추구(공동체 활성화, 경관 및 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수출 확대, 성장 촉진)	1.15	2.87	1.12	1.60	-2.72	3.14	1.08	-0.52	3.30	먹거리(식량) 안보 향상(공급능력, 구매능력, 품질 및 안전성 등)
생산성·효율성 제고 위한 주산지 중심의 규모화된 생산과 전국 소비지로의 유통	0.94	2.13	-0.91	-1.07	-3.21	2.31	0.34	-2.28	2.47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위한 지역 내 생산 및 소비
경쟁인찰, 공모을 통한 정부 정책 지원 대상 선정과 집중	0.12	1.87	-0.68	1.00	-1.38	2.56	0.27	-0.89	2.64	고령 영세농·신규 취업농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농업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여 농업인 전반에 지원 확대	1.59	1.55	-1.09	-0.92	-2.77	0.42	-0.03	-1.60	1.41	농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영세 취약농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여 분배 촉진
국가 주도·중앙정부 중심의 농정 강화	2.06	2.74	0.50	1.62	-2.45	2.54	0.62	0.79	2.92	농정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 및 농업인의 참여 농정 강화
정부 정책과 사업이 주도하는 농업	2.41	0.52	0.35	0.34	-2.32	2.01	0.16	-0.18	2.54	민간농업인, 농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농업

주) 각 시나리오별로 분홍색 막대의 길이가 좌측으로 길수록 농업의 모습 A를 더 많이 선호한다는 의미이며, 회색 막대의 길이가 우측으로 길수록 농업의 모습 B를 더 많이 선호한다는 의미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2022년 5월, 7월, 9월)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전문가·농업인·일반국민 등 3개 그룹에서 선호하는 농업의 미래 모습이 다양함과 동시에 일치하는 면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농업의 미래 모습은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전문가1과 2, 농업인3, 일반국민3 시나리오), 경쟁력 있는 농업(농업인2, 일반국민2 시나리오), 다원적 가치와 경쟁력이 조화된 농업(전문가3, 농업인1, 일반국민1 시나리오)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선호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진 주체나 추진 방식에서 있어서 시나리오 간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인2와 일반국민2 시나리오는 모두 경쟁력 있는 농업을 선호하지만 전자는 ‘국가 주도의 중앙정부 중심의 농정’과 ‘농가 개별 역량에 기반한 시장 경쟁’을 중시하며, 후자는 ‘농정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 및 농업인의 참여농정 강화’와 ‘농업 관련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있어서 농업인 간 협력과 참여’를 중시한다.

각각의 시나리오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내외 동인과 농업의 모습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시나리오 특징과 대내외 동인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농정 어젠다를 제시하였다.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관련 시나리오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정 의제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대 등이 주요 농정 어젠다이다.

경쟁력 있는 농업 관련 시나리오는 디지털·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과 사업화 체계 강화, 주산지 중심의 규모화된 농업 생산체계 등이 주요 농정 어젠다이다.

다원적 가치와 경쟁력이 조화된 농업 관련 시나리오는 대내외 여건의 다각적 고려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상호 이해 형성, 정책 대상과 정책 목표별 적절한 정책 추진 방식의 보다 세심한 도입 등이 주요 농정 어젠다이다.

농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농업의 미래 모습으로 어떤 농업 미래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다른 시나리오에서 추구하는 농업의 어떤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원하는 농업의 미래 모습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정 어젠다를 어떻게 논의하고 추진할지가 역시 숙제로 남는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농정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다변화·복잡화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농업인·일반국민 등 전체 국민이 선호하는 가치도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라 선호하는 미래 모습도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함을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농정 어젠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지면 관계상 부득이 원문 전체를 실지 못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에서 확인 가능함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전략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5개월여가 지나며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인 참여 금지와 기부금 상한액 제한이 기부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법인 기부를 가능하게 하고 상한액을 폐지하며 공무원의 기부 권유·독려 금지 조항도 없애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외에 민간플랫폼을 허용해야 한다거나, 지금처럼 단순 답례품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더해, 관계인구 형성 기반 마련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일본의 경험 등 관련 사례, 지자체 등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짚어봄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되고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산촌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계인구

### 고향사랑기부제를 관계인구 형성기반 마련의 장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닦을 올렸다. 기부자(개인)는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지정 품목 중 선택 가능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기금을 모아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우수 농축산물 등을 도시에 공급하여 지역 생산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즉, 기부금을 통해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완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사업 추진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높은 수준이다.

한편, 농산어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寄附制,  
關係人口

감소가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인구 형성이 주요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해당 지역·지역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관계인구는 농산어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기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과 관계없던 기부자가 기부와 답례품 그리고 사업 추진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방문하는 등 관계인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형성

### ■ 국내 실질적 농산어촌 관계인구 비율은 약 19.3%로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정기 방문(20.9%), 비정기 방문(38.2%), 주 2일 이상 체류(3.6%) 등의 형태로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 관계인구 범위 추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특정 농산어촌 지역에 정기·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35.3%, 그렇지 않은 비율이 64.7%로 집계되는 등 부모·지인 방문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농산어촌 관계인구층은 35.3%로 볼 수 있다.

한편, 넓은 의미의 관계를 세분화하면 본인의 삶에서 농산어촌이 큰 의미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8%, 부모·친인척·지인과의 교류만을 목적으로 농산어촌을 찾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였다. 그러나 이외 집단으로 특정한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산어촌에 방문하는 비율은 19.3%로 이 비율이 실질적 관계인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민 현황*		농산어촌 관계인구 비율 추정**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정기 방문	20.9%	관계인구 아님	64.7%	
비정기 방문	38.2%	지속 방문	농산어촌과 관계없음	8.8%
주2일 이상 체류	3.6%		부모·지인 방문	7.1%
방문 안 함	37.3%		부모·지인 방문 제외	19.3%

\*2021년 20세 이상 도시민 1,628명 설문조사 결과 인용

\*\*2021년 도시민 2,518명 설문조사 결과 인용

자료: 성주인 외,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

## 특집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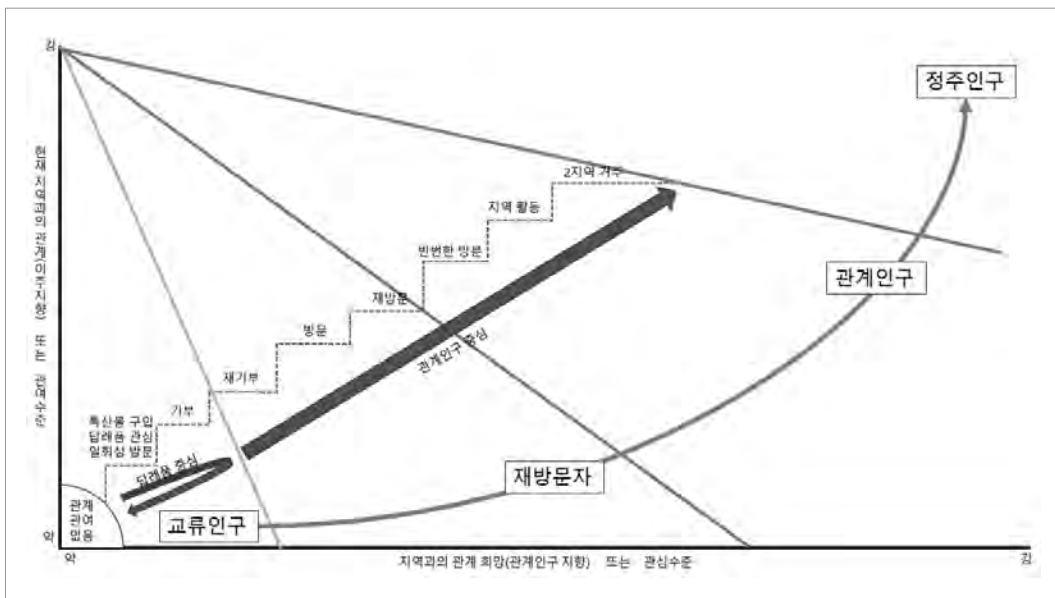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전략

####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 형성의 첫 단추

일본의 농촌사회학자인 오다기리 토쿠미는 관계인구에서의 ‘관계’를 마음이 쏠리는 관심과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관여의 속성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관심과 관여의 모든 영역을 관계인구로 칭하면서 그 프로세스는 계단의 형태를 보이며 그 출발은 우연한 방문과 해당 지역의 특산물 구입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인구론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접목하면 고향사랑기부제에서의 답례품 제공과 지자체의 사업 내용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기부자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기부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져 지역을 응원하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기부자의 금전적 부담을 낮추어 추가적인 기부로 유인할 수 있다. 기부를 통한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는 기부자의 재방문과 재기부로 이어져 지역에 대한 애착을 고취시키고 지역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관계인구로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용 방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 답례품 중심으로 운용할 경우 기부로의 유인은 늘어나겠지만 그 이상으로의 진전, 즉 재방문→재기부 그리고 지역 활동으로 이어지는 관계인구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비한 관계인구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성과 공유, 지역 초청 등의 부가적 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프로세스

자료: 일본총무성 <지금부터의 이주·교류 시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2018)와 오다기리 토쿠미 <관계인구론과 그 전개>(2018)를 바탕으로 필자 재생산

### ■ 고향납세제도와 관계인구 형성의 연계 추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역 만들기 주체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인구 형성에 주목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자체의 관계인구 형성 기회, 동기 제공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모델 사업인 ‘관계인구 창출·확대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관계인구 창출·확대사업은 관계심화형, 관계창출형, 주변확대형(내국인), 주변확대형(외국인)으로 구분하며, 관계심화형은 다시 연고형과 고향납세형으로 나뉜다.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하여 고향에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부자들에게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관계인구 형성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표 2] 일본 총무성의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

구분	내용	
관계심화형	연고형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계인구를 모집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
	고향납세형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하여 고향에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부자에게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
관계창출형	지역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과 지속적인 연계를 가질 기회나 계기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과제 또는 요구와 관계인구가 될 사람의 지식·기술을 매칭하기 위한 중간지원기능을 조성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	
주변확대형	도시에 있는 개인·기업·단체(NPO, 대학교 연구실 등)와 연계하여 도시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	
주변확대형(외국인)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와 연계하면서 방일 외국인과의 교류를 촉진해 지역(지역주민, 지역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창출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	

자료: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창출·확대사업’(2020)

## 일본 지자체 사례

### ■ 카가와현 미키정의 고향주민제도

카가와현의 미키정은 인구 28,000명 정도로, 오사카시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다. 온난한 기후와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 농업이 주요 산업이며 특히, 딸기 품종 중 하나인 ‘여봉’은 전국에서 생산량 1위를 자랑한다.

## 특집 II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전략

미키정은 카가와현에서 고향납세 기부액 1위(12억 엔)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주로 자연환경과 지역 경관 보전·활용에 관한 사업,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업, 교육환경 정비와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안심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농산촌 진흥에 관한 사업 등 총 8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기부자와의 관계성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부라는 행위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을 만들기로 이어지도록 고향주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고향주민제도는 기부자의 단순 기부를 한 단계 격상시켜 지역과의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대책이다. 2020년 1월 644명(미키정 인구의 약 2.3%)이 등록하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 고향주민제도를 활용한 관계인구 교류추진사업:

##### 고향납세 기부자를 고향주민제도 회원, 더 나아가 관계인구로

미키정은 고향주민제도의 발전을 위해 회원 등록을 촉진하고 고향주민과의 보다 깊은 관계성을 구축하는 형태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먼저, 고향납세 기부자를 관계인구 형성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부자에게 연 2회 우편으로 고향납세 팸플릿과 고향주민제도 리플릿을 발송하여 고향주민제도 회원 등록을 홍보하고 있다. 인근 카가와대학의 미키정 이외 지역 출신 재학생과 교직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내 인프라나 게시판 등을 통해 고향주민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고향주민제도 회원과의 관계성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고향주민제도 회원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계인구를 4단계로 분류하고(표 3) 회원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표 3] 미키정의 고향주민제도를 활용한 관계인구 교류추진사업

단계	주요 대상	내용	비고
1단계	고향납세 기부자, 지역출신자, 재학 또는 통근	고향주민제도 등록 촉진 · 카가와대학 홍보 강화 · 수도권 중심의 홍보 강화 · SNS 활용	약 ↓ 강
2단계	고향주민제도 회원	다양한 정보 제공 · 안내지 등에 의한 정보 제공 강화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실시	
3단계	미키정에 대한 관심·이해 심화	참여 기회 제공 · 지역 만들기 활동 참여 · 고향주민제도 회원에 의한 정보 발신	
4단계	지역 만들기 활동에 참가		

자료: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kankeijinkou/model\\_detail/h30\\_10\\_mikicho.html](https://www.soumu.go.jp/kankeijinkou/model_detail/h30_10_mikicho.html)), 검색일자: 2023. 1. 21.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미키정 안내지를 발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 도서관 개방 및 미키정 관광체험 투어(9월), 고향주민제도 회원과 행정기관 담당자와의 간담회(11월), 딸기 수확체험 투어(2월) 등을 통해 고향주민제도 회원과 지역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매년 12월에는 도쿄에서 '미키정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의 현안 및 과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찾아가서 듣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 ■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계인구 형성 간 연계를 위한 준비사항

### ■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지역 체계 구축과 관계인구 받아들이기

고향사랑기부제는 내재되어 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부라는 실천적 행위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한다. 기부자의 관심을 지역 방문, 지역 활동 참가로 발전시켜 관계인구로 형성하는 것은 지방소멸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시대적 아젠다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관계인구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해 각 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선, 관계인구 형성이라는 또 다른 지향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키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부자를 단순 기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지역 내·외부에 공유하면서 지역에 대한 공감과 관심, 이해를 높여야 한다. 지역에는 왜 관계인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다. 지역 내 관계인구 체류 공간이나 지역주민과 관계인구 등 다양한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여 교류 기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관계인구 형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와 조화롭게 지역과의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조직이 중요하다. 이를 테면 중간지원조직 육성이 그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은 교류뿐 아니라 관계인구와 지역의 관계를 지속·심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담당한다. 그리고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사업 구상·수립·수행 등도 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정착이 완전하지 않은 지금,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계인구 형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관계인구의 확대 설정은 농산어촌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출처: 경남연구원 Brief 제173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전략'(2023. 3. 10.)

\* 회보 분량, 내용 전달 등을 위해 원문 일부를 부득이 편집하였음

#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관점의 전환' 고려할 때



**NO FARMER  
NO FOOD**

**기고** 강선일 한국농정신문 기자

| 친환경농업과 먹거리 기본권 그리고 농민 권리 실현을 위해 싸우는 농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 농민이 인간답게 살아야 우리 사회도 지속 가능하다는 신념하에 현장을 최대한 열심히 누비려 노력 중이다.

최근 농촌 인력난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보도되었다. 외국인노동자 알선·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감정 다툼이 일어났고 살인이라는 참담한 범행으로 번진 것이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농촌 인력난이 ‘농사의 종말’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는 기우가 아닌 상태였다. 기후 변화로 농작물재배의 어려움은 폭증하고 있지만, 농촌 고령화 심화와 인구 격감으로 농민들은 일손 구하기가 불가능할 지경이 되어 농사 규모까지 축소해야 하는 형편에 몰리고 있다.

올해 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통제 완화로 그나마 상황이 나아지리라던 기대도 잠시, 정부는 난데없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대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미등록 외국인 대상 강경 단속은 이미 올해 2월에도 진행되고 있었다.

### ■ 사람이 없으니 농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경기도 여주시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집중단속 대상’이었다. 여주시 가남읍에서 친환경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 K 씨의 농장에서 2월 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18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K 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명목으로 출지에 5,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고용한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봄, 그는 동네 곳곳에 현수막까지 걸며 고구마 파종을 도울 사람을 찾았다. 3개월간 단 1명이 지원했고 그마저도 만나질 일하고 힘들다며 그만뒀다. 그 뒤 내국인 인력은 구할 수 없었다.

10만 평 농지에서 생산한 친환경 고구마 약 450톤은 학교로 출하해야 할 물량이었으나 출하는 커녕 선별작업도 불가능하게 됐다. 3월 말 K 씨의 농장을 방문했을 때 갈 곳을 잃은 고구마는 저온저장고 안에서 쭈글쭈글하게 썩어가고 있었다. 다음 해 농사를 이어가려면 전년도에 번 수입을 고스란히 투자해야 하는데, 고구마를 팔지 못하면 가진 빚 6억 원은 2배인 12억 원으로 오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3월 17일 여주시청 앞에서 100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무부의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업인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농업 인력의 80~90%가 외국인노동자인데, 이들 중 취업비자근로자,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 농업 인력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여주 농민들의 설명이었다.

속 시원한 인력 대책 없이 전개된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결과적으로 농촌 인력난만 더 심화시켰다. 여주 점동면의 한 감자재배 농민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원래 파종해야 할 시기도 10일 늦게 파종했다. 9,000평 농지에서 그와 2명의 외국인노동자가 파종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할 사람이 3명만 더 있어도 하루 만에 끝날 파종이 사흘이 넘어가고 있었다.

파종·수확 작업 모두 적절한 작업 시기를 놓치면 작물 성장과 품위에 악영향을 미친다. 여주 강천

면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한 부부는 지난해 10월 말 마늘을 심었다. 법무부 단속이 있던 때도 아니었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예년보다 15일 늦게 마늘을 심었고 대가는 컸다. 부부가 심은 마늘의 절반 이상이 생육 부진에 시달렸다.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은 까다로운 품위 기준을 맞춰야 해 생육이 부진한 마늘은 고스란히 반품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설재배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모습.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등의 대책도 나왔으나 지금 당장 모든 농가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 상시·임시고용 수요 중심의 인력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정부도 인력난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9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년 대비 외국 인력 도입률 73% 확대('22년 2만 2,200명 → '23년 3만 8,418명) ▲국내 인력 공급 전년 대비 20% 확대('22년 293만 명 → '23년 352만 명)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22년 154개소 → '23년 170개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 대표적인 방식은 지자체가 나서서 타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국가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해 베트남 동탑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기준 62농가에 163명의 계절근로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철저히 상시고용 또는 임시고용 수요 중심으로 짜인 현행 농촌 인력난 해소 대책은 농촌 현실과 적잖이 동떨어져 있으며, 사실상 시설재배농가나 축산농가의 수요만 겨우 맞출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들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형태에 대해 2020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대상인 402개 작물재배농가 중 상시노동자(7개월 이상 고용)와 임시노동자(1~6개월만 고용)를 고용하는 농가 비중은 전체의 30.6%에 불과했다. 이 30.6%의 농가 중 52.9%의 농가는 1~2개월만 고용이 필요했으며, 상시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4.5%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작물재배업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일용직노동자(1개월 미만의 일시적 기간 동안 고용)이며, 임시·상용 노동자 중에서도 1~2개월간의 고용이 주를 이뤘다. 반면 축산농가의 경우 연중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배추·고구마·감자·인삼 등 노지재배 작물은 재배 특성상 30일 이내의 단시간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며, 이 중 80% 이상의 인력 수요는 주로 파종이나 수확을 위한 수요로 봄·가을 농번기에 편중된다. 따라서 현행 외국인노동자 고용 정책은 노동 집약적 농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 ■ 강경책 중심 미등록 이주민 대책,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된다

지난 3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을 규탄하는 전국 이주민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법무부의 초강경 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의 생활과 인권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이며, 미등록 이주민들을 음식로 숨어들게 만들고 더 많은 불법을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세계 각국은 미등록 이주민의 '정규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했다. 그 목적이 일시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든, 미등록 이주민도 '사람'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든 내국인이 점차 사라져가는 농촌과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는 사람의 다수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객관적 현실을 인정했기에 취하는 선택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2020년 5월, 스페인 북부의 과일생산자연합은 4만 명의 계절노동자를 당장 구하지 못하면 지역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일시적이거나 미등록 이주민이 농업 분야에서 일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민권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전부터 스페인에서는 '미등록'이나 '불법체류자'라는 표현 대신 '비정규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정규화를 유도했고,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조치를 취해왔다.

요컨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도 등의 개선과 강화도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그들을 '불법체류자'로만 규정하며 더욱 '불법'의 영역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 현장의 객관적 노동력 부족 현실을 인정하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전향적 정책을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 ※ 참고자료

엄진영,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농촌경제』제4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우춘회, <갯잎 투쟁기>, 교양인, 2022년

# 고온기, 파프리카 품질 높이는 비결은 ‘뿌리 냉방’

파프리카는 여름철 주로 고랭지에서만 재배할 수 있고 평지의 농가 대부분은 6~8월 파프리카를 재배하지 못하는 생산 공백기가 생겨 8~10월 국내 유통 또는 수출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파프리카를 일 년 내내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고온기 파프리카의 ‘뿌리 냉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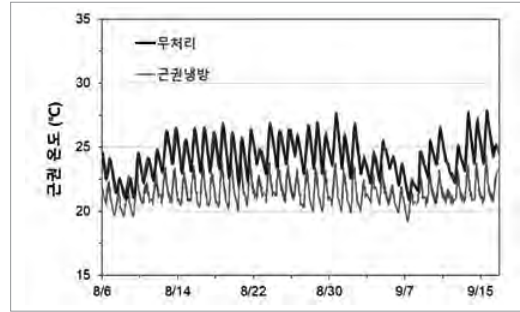


파프리카는 밤 온도가 최소 18℃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생육단계에 따라 양분과 수분 관리가 필요해 시설에서 토양 또는 수경으로 재배한다. 여름철 온실 내부 기온이 35℃ 이상 오르면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열매가 달리지 않고 햇빛에 데는 피해나 배꼽이 썩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평지의 농가 대부분이 6~8월 파프리카를 재배하지 못하는 생산 공백기가 생겨 8~10월 국내 유통 또는 수출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연구진은 국내에서 많이 재배하는 ‘라운레드(국산)’, ‘나가노(도입)’, ‘올라운더(도입)’, ‘나란지(도입)’ 품종을 고온기 평지 온실에 심고 ‘뿌리 냉방기술’을 적용했다.

뿌리 냉방을 위해 배지 안에 냉수관을 설치한 뒤, 냉난방장치(히트펌프)로 물 온도를 20~21℃로 만들어 이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24시간 공급했다. 배지는 통기성과 물 빠짐이 좋은 펄라이트를 이용했다. 펄라이트는 진주암(화산암의 일종)을 1,000℃ 이상으로 가열하여 팽창시킨 다공성 배지로, 매우 가볍고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아 새로운 뿌리를 생성하는데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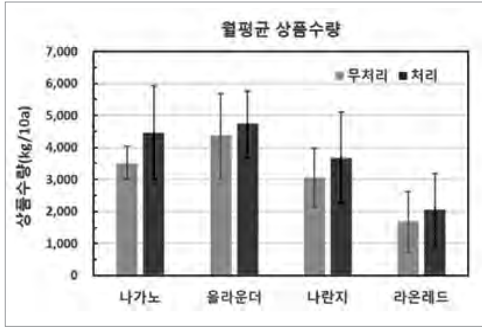
그 결과, 고온기 맑은 날 뿌리 냉방을 적용한 배지의 온도는 19~23℃로, 뿌리 냉방을 하지 않은 배지 온도(21~28℃)보다 평균 2.8℃, 최대 5.7℃가 낮았다(뿌리 냉방 외 포그(안개분부)는 동일하게 적용. 온실 내 온도가 26℃가 넘으면 분무가 시작되고 24℃로 내려가거나 습도가 80%가 되면 포그가 정지되도록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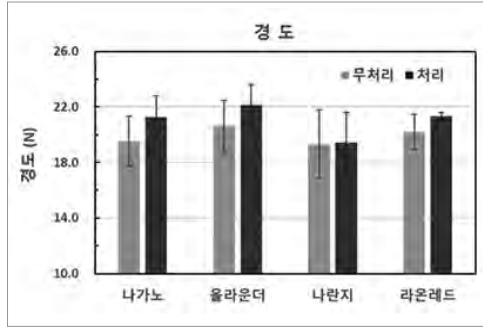
근권(뿌리 부분) 냉방 처리 유무에 따른 뿌리 부분 온도 비교



파프리카 펄라이트 재배 전경(여름철 평지 온실)



파프리카 여름 재배 시 뿌리(근권) 냉방 처리에 따른 상품 수량



파프리카 여름 재배 시 뿌리(근권) 냉방 처리에 따른 열매 경도

### 뿌리 냉방한 파프리카, 평균 상품 수량 16.1% 증가... 식감·색깔 등 시장성도 합격점

생산성과 품질을 분석한 결과 뿌리 냉방을 한 파프리카는 뿌리 냉방을 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평균 상품 수량이 16.1% 증가했다. 식물 1주(그루)당 열매 무게는 15.1%, 식물 1주(그루)당 열매 수는 16.4%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경도(단단함)도 뿌리 냉방을 한 파프리카는 대조구보다 평균 5.7%로 유의하게 높았다. 품종별로는 ‘나가노’ 품종이 9.4%, ‘올라운더’ 품종이 7.7% 높았다.

시장성 평가 결과, 뿌리 냉방기술을 적용한 파프리카는 고랭지에서 생산한 파프리카와 식감·색깔(색택)·경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실험에 쓰인 냉수 공급관으로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공급해 난방도 할 수 있다. 뿌리 부분 냉난방기 설치 비용, 전기료, 냉방과 난방을 같이 했을 때 증가한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 10a당 한 번(작기) 재배할 때 약 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장은 “이번 연구는 은색 차광막을 치거나 온실 전체를 냉방하는 기존 방법 대신 뿌리 쪽 부분 냉방 효과를 검증하고 파프리카의 연중 생산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고온기에 펠라이트, 뿌리 냉방기술을 활용하면 내수 유통, 수출 물량이 부족한 8~10월에도 품질 좋은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뿌리(근권) 냉방 경제성 분석

(단위: 원/10a, 1작기 기준)

손실적 요소(A)
<p>● 증가되는 비용(단위: 원)</p> <p>- 근권 냉난방시설 감가상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권 냉난방시설 설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 780원/m<sup>2</sup> + 인건비 1,380원/m<sup>2</sup> = 2,160원/m<sup>2</sup></li> </ul> </li> <li>● 감가상각비: 2,160,000/10년 = <b>216,000원</b></li> </ul> <p>- 근권 냉난방에 소요되는 전기료(2,296,19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방) 13,916원/일 × 3개월 = <b>1,252,440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9원/kwh × 15시간 × 22.1kwh = 13,916원/일</li> </ul> </li> <li>● (난방) 27,833원/일 × 4개월 = <b>3,339,912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9원/kwh × 15시간 × 44.3kwh = 27,833원/일</li> </ul> </li> </ul> <p>- 증가된 수량에 대한 선별·포장비용(인건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90.6kg/10a × 300원/kg = 717,182원/10a</li> </ul> <p>- 계(A) : <b>5,525,561원</b></p>
이익적 요소(B)
<p>● 증가되는 이익</p> <p>- 관행(무처리) 대비 증가된 생산(평균1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가된 생산량: 17,239kg/1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작기 평균/여름작형('19): 14,849kg/10a</li> </ul> </li> <li>● 증가된 수익: 4,834원/kg* × 2,390.6kg = <b>11,556,190원</b></li> </ul> <p>- 계(B) : <b>11,556,190원</b></p>
<p>● 추정수익액(B-A): 11,556,190원 - 5,525,561원 = <b>6,030,629원</b></p>

\* 파프리카 2019년 평균 도매가격(KAMIS 농산물유통정보): 4,834원 적중

# 지하수위 높은 시설재배지 토양수분 관리 방법

시설하우스 농업인들은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잎의 색이 노랗게 변하면 흔히 염류장해가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작물 생육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지하수위가 높아 토양에 수분이 과다하게 많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토양수분 과다 여부 판단 방법

시설하우스 주변에 ① 논 토양이 있고 시설하우스보다 지대가 높은지 확인한다. 논 토양이 있으면 ② 흙토람(soil.rda.go.kr)에 접속해 필지의 지번을 입력하고 '지하배수등급'과 '토성'을 알아본다. 배수등급이 '매우불량'이고 토성이 '사질~사양질'이면 지하수위가 높아 토양에 수분 함량이 많고 물 빠짐이 불량해 작물 생육이 부진할 수 있다. ③ 만약 토양수분장력

계(텐시오미터)가 있다면 이를 토양에 설치한다. 7~10일 후 아래 '토양수분 과다 여부 판단 방법(그림 순)'과 같이 텐시오미터의 바늘이 '0'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수분이 과다하게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토양수분 과다 여부 판단 방법(그림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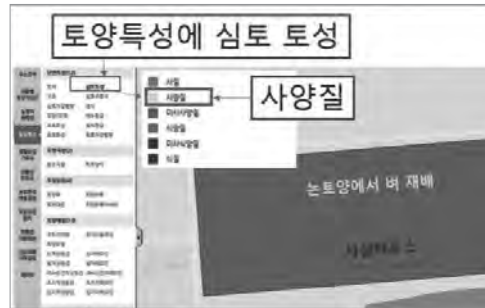
① 주변에 논이 있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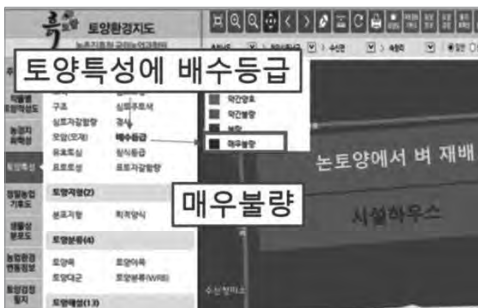
②-1 휴토람(soil.rda.go.kr)에 접속



②-2 시설하우스의 필지 지번을 입력



②-3 심토 토성이 '사질~사양질'인지 확인



②-4 배수등급이 '매우불량'인지 확인



③ 토양에 설치한 토양수분장력계(텐시오미터)의 바늘이 '0'인지 확인

### 토양수분 관리 방법

시설하우스의 토양수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① 논 토양과 시설하우스 사이에 깊은 배수로(30cm 이상)를 설치하고 배수로 벽면으로부터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수로 비탈면에 비닐막이나 패널을 둔다. ② 시설하우스의 두둑을 25cm 이상 높게 만든다. ③ 벚짚 등과 같은 거친 유기물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많이 넣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a당 500kg의 벚짚을 투입했다면 수분이 많은 경우에는 1t을 넣는다. ④ 두둑 전체를 비닐로 멀칭하는 대신 [그림]처럼 부분적으로 멀칭하거나 멀칭하지 않는다. 만약 멀칭하지 않아 잡초가 많이 발생하면 토양 제초제를 살포해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⑤ 작물 재배기간에 토양수분장력계의 바늘이 '적정'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물을 준다. 토양수분장력계를 이용해 수분 함량이 [표]와 같이 추천하는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 수치보다 높으면 토양에 물을 공급한다.

[그림] 지하수위 토양수분 과다한 경우 관리 방법



배수로 깊게 설치

부분 멀칭

토양수분장력계 설치

[표] 시설작물 관수 개시 기준(단위: kPa)

작물	생육초기 (활착기 등)	영양 생장기	개화기	착과기	과실 비대기	수확기
오이	15~30	20~40	20~40	20~40	15~20	15~20
토마토	25~40	20~40	25~40	25~40	25~40	25~40
고추/단고추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참외	20~30	30~50	30~50	30~50	30~50	30~50
멜론	20~30	20~30	30	50	20~30	80~100
애호박	15~30	20~40	20~40	20~40	20~40	20~40
배추	봄	15~30	20~30	20~30		
	가을	15~30	20~30	20~30		
무/열무	15~30	50	50	50~100		
참깨	30~50	50~70	50~70	50~70	50~70	50~70

### 토양수분장력계(Tensiometer) 설치 방법



1) 토양수분장력계와 같은 지름인 금속관이나 토양채취기(오거)를 사용해 구멍을 판다.



2) 약간의 물(약 50ml)과 같은 양의 토양을 구멍에 넣어 토양 슬러리(토양과 물을 반죽한 상태)를 만든다.



3) 토양수분장력계를 넣고 약간 비틀어 고정시킨 후 토양과 토양수분장력계의 틈을 메운다.



4) 탈기된 증류수(또는 끓이고 여과한 관개수)를 채우고 3~6시간 후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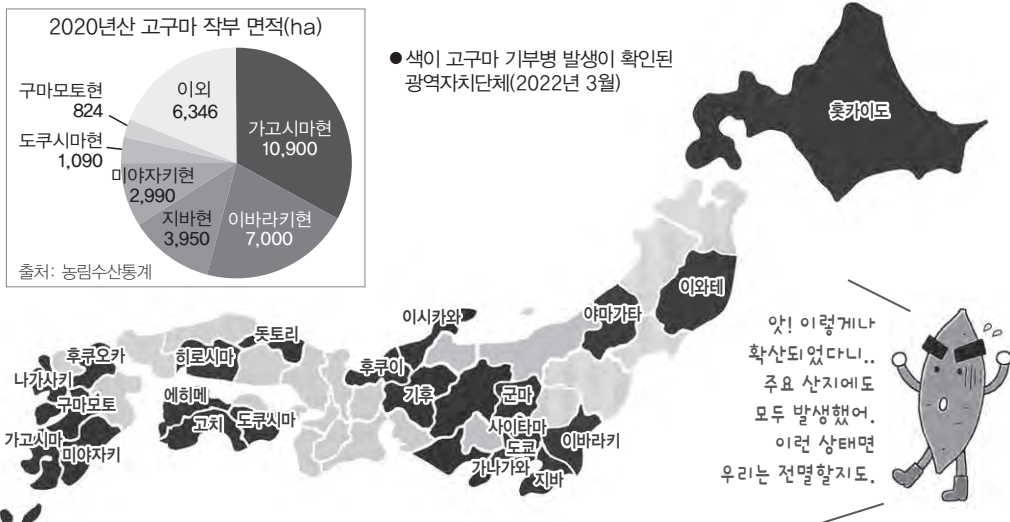
## 고구마 기부병의 특성과 대응법

최근 일본 전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구마 기부병은 2018년에 오키나와와 가고시마·미야자키에서 시작되어 규슈·시코쿠·혼슈·홋카이도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들도 예의주시하여 조기 발견하고 방제할 수 있도록 고구마 기부병의 특성과 대응법에 대해 소개한다.

### 일본 전역 고구마 기부병 확산

최근 일본 전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구마 기부병은 2018년에 오키나와와 가고시마, 미야자키 등 3개 현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이후 규슈뿐만 아니라 시코쿠와 혼슈, 홋카이도에 확산되었다. 밭에서는 먼저 주원에 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을이 되어 비로소 피해를 알아채고 땅을 파 보면 대부분의 고구마가 썩어 있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성가신 질병으로 농가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다.

### 고구마 기부병 어디까지 확산됐나?



## 고구마 기부병의 특성과 피해 양상

### ● 병원균의 성질

*Diaporthe destruens*라는 사상균(곰팡이)의 일종이다. 발육 온도는 15~35℃(적온 27.5~30℃)이다. 메꽃과 식물에 기생하며 피해가 확인되는 작물은 고구마뿐이다. 1912년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처음 발견된 후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최근 10년간 아시아에서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주원의 흑화(출처: 미야자키현종합농업시험장)

### ● 확산 양상

겉보기에는 건전하지만 감염되어 있는 씨고구마 또는 묘가 되어 밭에 균을 옮긴다. 병반부에 대량의 포자를 형성, 물로 이동(비바람, 물 웅덩이, 물뿔 등)해 주변에 확산된다. 고구마 수확 후에도 병원균은 토양의 잔사 속에 살아남아 이듬해 전염원이 된다.



고구마 부패 (품종은 고케이 14호)

### ● 질병의 증상

묘상이나 밭, 저장 중인 고구마에서도 발병한다. 밭에서 처음으로 병증이 나타나는 것은 '주원'으로 지제부의 줄기가 까맣게 된다. 그후 감염이 진행되고 지상부의 줄기와 잎은 빨간색 또는 노란색, 보라색 등으로 변색되고 이윽고 고사한다. 지하부의 고구마는 지제부부터 부패한다. 덩굴이 무성해지는 시기는 '주'의 이상을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질병이 비밀스럽게 확산된다. 수확기가 가까워지면 비로소 피해를 눈치채게 되고 고구마를 파 보면 아연실색하게 된다.

## 피해 농가의 극복 사례

- 약으로 병원균 밀도 낮추고, 다양한 미생물로 좋은 균 증식시켜

가고시마현 미나미사쓰마시 구리노 요이치 씨 농장에 기부병이 발생한 것은 2020년부터이다. 밭 전체에 순식간에 확산되어 수량은 예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고구마가 썩어 없어졌기 때문인지 수확기제로 수확해도 아무 것도 올라오지 않는 상태였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중품 정도를 당연하게 많이 수확해왔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2021년에는 60% 가량 수확하여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씨고구마와 묘를 다루는 방법이다. 미나미사쓰마 지역진흥국의 지도대로 씨고구마는 저장 전에, 묘는 자른 직후에 농약으로 소독한다. 또, 구리노 씨만의 방법으로 정식 직후 재배상자에 묘를 칼슘제와 트레할로오스액에 담가두어 표면을 보호하거나 활착을 좋게 하여 심어 상처를 방지하고 있다.

토양 소독도 실시한다. 원래 토양 소독을 아무리 하더라도 병원균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고구마의 경우에도 기부병 균은 반드시 있다. 이 균만 지나치게 증식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한다. 구리노 씨는 미생물이 가득한



소주용 고구마를 3ha 밭에서 재배하는 구리노 요이치 씨(58세)



묘 소독을 하는 모습. 채묘한 후 재배상자에 바로 침지한다.



우분+왕겨+쌀겨 퇴비. 정기적으로 뒤집어주고 균액 살포를 반복하면 약 1년 후에 완성된다.



발효 중인 퇴비. 좋은 균이 풍부하여 하얀 포자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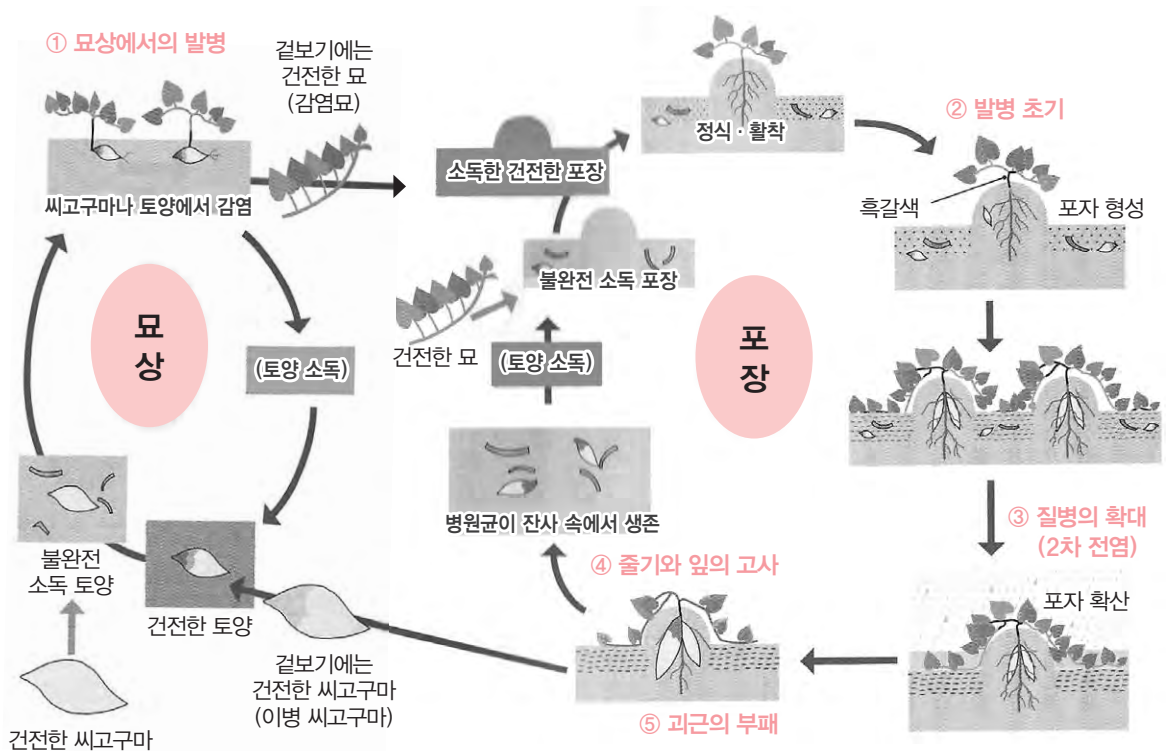
퇴비를 사용하고 있다. 재료는 우분·왕겨·쌀겨이다. 토양을 갈아엎을 때마다 낫토와 요구르트·트레할로오스를 혼합한 발효액, 당밀, 가쓰오 액기스, 다시마 우린 물 등을 살포한다.

2021년에는 출하치인 소주 업체가 고구마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광합성 세균을 배부해주어 이를 퇴비에 부어 사용했다. 낫토균과 광합성 세균은 궁합이 좋다. 완성된 퇴비는 토양 소독을 한 밭에 살포하고 있다. 약으로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고 좋은 균을 추가하여 증식시키는 것이다. 역시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 고구마 기부병 전염 고리와 방제 대책

일본 농림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의 '고구마 기부병 발생 생태와 방제 대책'을 참고로 기본 방침을 정리했다. 핵심은 '반입하지 않기', '증식시키지 않기', '남기지 않기' 3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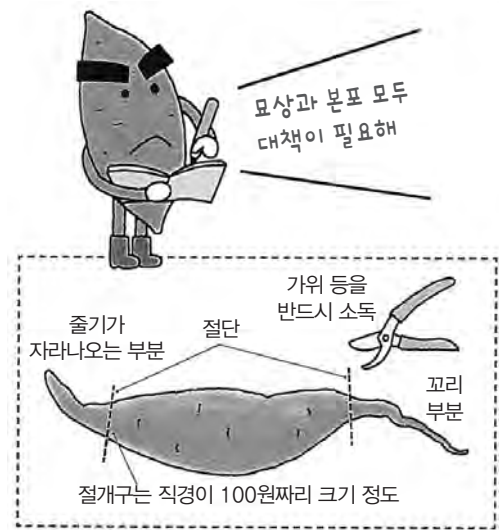
고구마 기부병의 전염 고리(추정) - 걸보기에는 건전한 씨고구마나 묘에서 감염이 확대된다.



● 방침1 - ‘반입하지 않기’

〈씨고구마의 발병 리스크를 경감하는 방법〉

- 기부병이 발생하지 않은 씨고구마 생산 전용 포장에서 씨고구마를 채종  
발생포장밖에 없는 경우 기부병 병반(지제 줄기의 흑변)이 나타나지 않은 주에서 채종한다.
- 흐르는 물로 씨고구마에 붙어 있는 흙을 가볍게 씻고 선별  
표피 변색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병에 걸린 씨고구마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 고구마 줄기가 자라나오는 부분과 꼬리 부분을 제거(우측 그림 참고)  
고구마 줄기가 자라나오는 부분의 제거는 기부병 대책, 꼬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은 건부병 대책으로 저장 중의 부패를 예방한다.
- 씨고구마를 소독하여 건조  
흑반병 대책으로서 thiophanate-methyl(티오파네이트 메틸) 수화제 200배 희석액에 30분간 담궈두고 그늘에 말려 표피가 건조해지면 저장한다.  
※ 기존과 달리 저장 후가 아닌 저장 전에 실시



〈묘 발생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방법〉

- 묘 채종  
지제에서 5cm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묘를 채종한다. 묘는 주 기부에서 떨어질수록 감염 리스크가 줄어든다.
- 묘 소독  
베노밀 50% 수화제, thiuram(티우람) 20%+베노밀 20% 수화제, imidazole(이미다졸)계 30% 수화제를 각각 500배로 희석한 액에 30분간 침지한다.  
※ 묘 소독은 반드시 채묘 당일!

● 방침 2 - ‘증식시키지 않기’

〈본포의 배수 대책〉

균은 물을 매개로 감염된다. 명거나 경사 포장을 통해 강우 후의 표면 배수를 촉진하고, 트랙터 오거 드릴로 경반을 파쇄하여 ‘지하 배수’도 촉진하는 것이 좋다.

### <발병주 제거>

밭에 발병주를 남겨두면 대량의 포자가 형성되고, 강우 시 담수나 물이 튀므로 인해 주변 주로 감염된다. 발병주를 제거해두면 약제 살포 효과도 커진다.



### <저항성 품종 도입>

일본 주요 품종 간 기부병 저항성 정도에 차이가 인정된다. 오키코가네, 다마아카스 등 저항성이 강한 품종은 조기 수확하지 않아도 부패가 억제된다.

### <조기 수확>

균은 지제의 줄기에서 지하 줄기, 괴근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침입해간다. 지제의 줄기 발병 피해가 클수록 지하부 피해도 크다. 조기 수확하면 괴근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저항성이 약한 '다카케 14호'도 기부 발병주율이 10%가 되기 전에 수확하면 괴근 부패를 억제할 수 있다.

### <이외 증식시키지 않는 대책>

약제 살포, 메꽃과 이외의 작물과 윤작, 휴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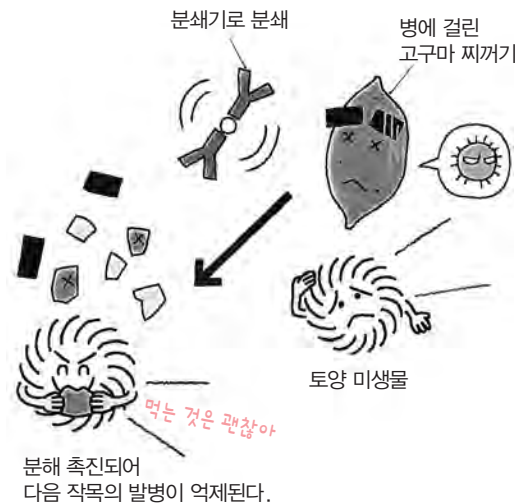
## ● 방침 3 - '남기지 않기'

### <고구마 잔사 반출, 갈아엎기>

균은 잔사에서 월동하여 이듬해 1차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본포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반출하지 않는 경우 갈아엎어 분해를 촉진한다. 미리 잘게 자르거나 고구마 부스러기와 줄기부를 반출한 후 갈아엎으면 효과가 상승한다.

수확 직후에는 잔사가 수분을 머금고 있어 부드럽기 때문에 작업하기 편하며 분해에 필요한 온도도 확보하기 쉽다(11월 하순~2월은 추워서 분해가 진행되지 않는다).

갈아엎기 전에 분쇄기로 잘게 자르면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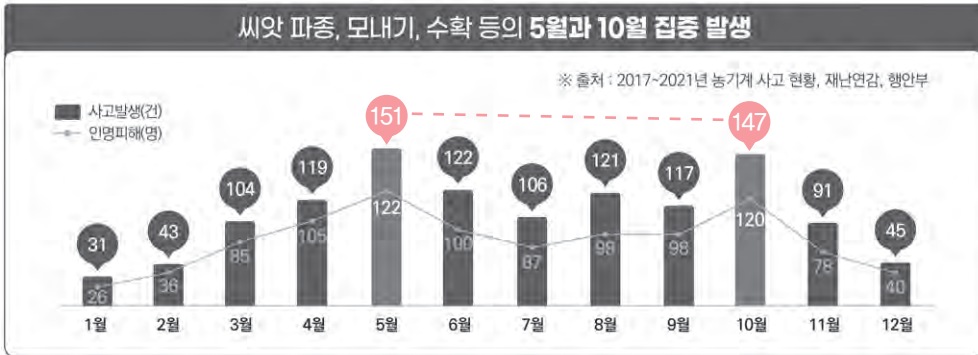


• 출처: 일본 '현대농업' 2022년 6월호

## 농번기 주의 필수! 농업기계 안전이용법

### 농업기계 사고 발생 현황

- ✓ 매년 농업기계 관련해 1,19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86명이 사망하고 909명이 다쳤음  
- 출처 : 2017~2021년 농기계 사고 현황, 재난연감, 행안부
- ✓ 농업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보다 9배 이상 높았음
- ✓ 농업기계 사고는 5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했음



- ✓ 농업기계 사고 유형은 끼임 37.8%로 가장 많고 전복·전도 22.9%, 교통사고 17.1% 등의 순임(21)
- ✓ 농업기계 손상 사고는 경운기가 가장 많았고, 예취기, 트랙터의 순임



# 농업기계 공통 안전 관리

## 농업기계 보관창고는 항상 정리 정돈



## 작업 시 적합한 복장



## 점검 시 반드시 엔진정지



## 연료보급 시 화재 주의



## 승하차 시 안전하게



## 주변 안전 확인 후 출발



## 안전벨트 착용



## 운전석 주변 항상 청결



## 음주운전 절대 금지



## 안전장치 제거 금지



# 도로 주행 시 주의사항

방어운전 습관화



교통법규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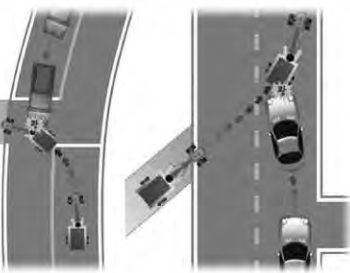
방향지시등 사용



곡선도로 서행



교차로 진출입 시 시야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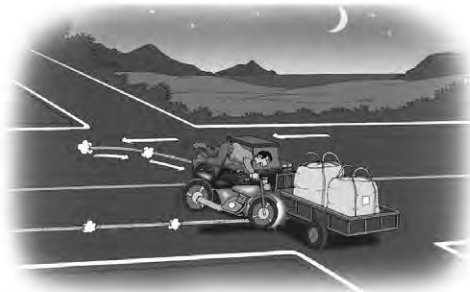
도로변 주정차 위험



등화장치 부착



차도에서 후진 금지



## 경운기

조향 클러치는 저속에서 짧게 조작



좁은 도로 진입 시 감속



비포장 농로 저속 주행



## 관리기

벨트 등 회전부위에 신체접촉 주의



작업기 이동 시 동력을 끊고 저속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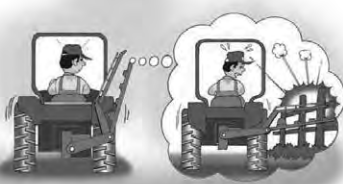


후진 시 저속으로, 클러치는 천천히 연결



## 트랙터

안전한 논·밭 출입로 이용 이동 시 작업기를 세우고 PTO동력 끊음



작업 시 지면 상태 확인

플 위에서 브레이크 사용 시 미끄러질 수도...



## 이앙기

육묘상자는 모두 내리고 이동



모판 보급 시 이앙기 정지



## 콤바인

논둑 넘을 시 직각 방향 운행

기계 승하차 시 사다리는  
적재함 높이의 4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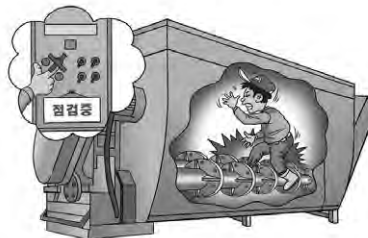
이물질 제거 시  
엔진 정지



## 고정형 농기계(사료 배합기, 토양 교반기 등)



흙, 비료 등  
부을 때  
기계 정지



정비·청소 시  
다른 작업자가  
임의 조작  
불가 조치

## SS기



안전 보호구 착용



진행방향 안전 확인



## 예취기



풀 속 병, 돌 등 제거



톱 대용 사용 금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



작업반경 15m 이내  
접근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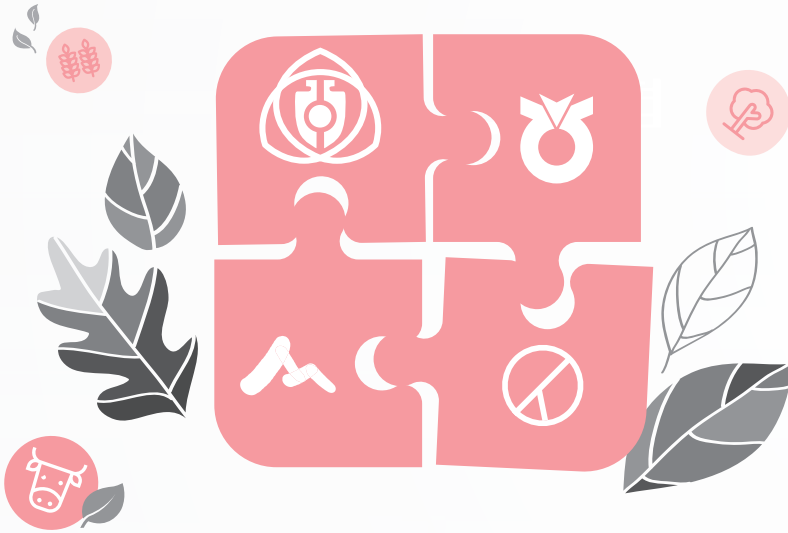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역 농 · 축협, 농협손보(1644-9000, www.nhfire.co.kr)로 문의 가능합니다.

• 출처: 농업인안전365(<http://farmer.rda.go.kr>), 간행물 '농업기계 안전이용 가이드', 농촌진흥청, 2023

# 우리 협회 회원 조합장의 포부와 연대의 인사말

전국의 농협·수협·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3월 8일 치러져 우리 협회 회원 중 30여 명이 당선되었다. 조합장은 해당 조합은 물론 지역의 성장을 이끌 지도자이자, 우리 협회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할 리더이다. 지역순으로 조합장 8인의 임기 4년간 포부와 계획, 우리 협회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인사말을 전한다.



### ■ 인천광역시

이태선 (남인천농업협동조합)

### ■ 경기도

장주익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이상규 (평택농업협동조합)  
오인환 (평택원예농업협동조합)  
박도영 (양주농업협동조합)  
이상훈 (벽제농업협동조합)  
장순복 (지도농업협동조합)  
유완식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김보연 (고양시산림조합)  
신기영 (서운농업협동조합)

### ■ 충청북도

이화준 (청주농업협동조합)  
박근수 (제천농업협동조합)

### ■ 대전광역시

김낙중 (회덕농업협동조합)

### ■ 충청남도

이종목 (충서원에농업협동조합)  
지시하 (논산농업협동조합)  
황인국 (정산농업협동조합)

### ■ 전라북도

양승엽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김득추 (북익산농업협동조합)  
강신학 (삼례농업협동조합)  
송영욱 (이서농업협동조합)  
최연수 (장수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오세준 (부안군산림조합)

### ■ 전라남도

최창기 (고서농업협동조합)  
노은준 (무안농업협동조합)  
양명모 (북신안농업협동조합)

### ■ 경상북도

김성웅 (영양군산림조합)

### ■ 경상남도

서환익 (김해시산림조합)  
김호식 (청도농업협동조합)  
신원기 (부곡농업협동조합)  
김경우 (양산시산림조합)

### ■ 울산광역시

간은태 (언양농업협동조합)

### ■ 제주특별자치도

고봉주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장 주 익

## 本立道生, 기본에 충실한 '수원축협'을 위해!



안녕하십니까. 수원축협 조합장 장주익입니다.

수원축협은 1957년 설립되어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등을 관할 권역으로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축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조합장으로 재임하며 이루어낸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튼튼한 수원축협, 조합원분들께 더 다가가는 수원축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조속한 완공 및 가동으로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수원축협은 10여 년의 준비를 통해 여러 난관을 뚫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지난 '22년 4월 착공하여 '24년 9월 시험가동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인근 지역 도시화와 각종 환경 규제가 나날이 강화되어 축산인들의 양축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축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공사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처리시설을 만들어 조합원이 안심하고 축산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원축협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은 수원축협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를 더욱 활성화하고, 화성에 하나로마트를 추가 설치하여 소매 판매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기존 축산물유통센터와 육가공장의 역할을 고도화하고, 장기적으로 축산물공판장 사업 추진을 통해 축산물 종합 팩커의 면모를 갖추어 갈 것입니다.

**조합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헬퍼 조직 운영을 통해 조합원의 휴식을 보장하고, 원로조합원, 여성조합원 등 계층별 복지 예산 증액을 통해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수원축협, 100년 가는 수원축협을 만들겠습니다.**

후계 축산인을 집중 육성해 우리 조합의 미래 기반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사업 개발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미래 먹거리사업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수원축협이 걸어가는 길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설립목적은 놀라울 정도로 '일맥상통'합니다. 선진축산기술 보급, 도·농 상생, 축산인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에 수원축협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연대하여 함께 간다면 더욱 힘찬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장 주 익



고양시산림조합  
조합장 김보연

존경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산림조합 조합장 김보연입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농업기술회보』를 통해 회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2015년 고양시산림조합장 당선 후 2019년 무투표 당선에 이어 올해 무투표 당선으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해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로 노력한 결과 34억 3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전국 142개 산림조합 중 전국 1위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식사동 산림생태문화센터를 2021년 3월 개장하여 현재 상설나무판매장, 숲카페, 임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유통센터&숲카페는 임업의 6차산업화에 근접한 새로운 임업 모델로 조합원님과 고양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고양시 임업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번째 임기에 새로운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명실상부 최고의 임업기관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신용사업으로 능곡본점, 원당지점, 일산지점 3개소의 금융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6월 일산지점 신규 개점 이후 조합원,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현재 수신 2,233억 원, 여신 1,695억 원으로 신용자산 4천억 원 돌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조합은 전국 142개 산림조합 중 수신 규모 3위, 여신 규모 3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1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양시산림조합은 지난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로 ‘산림조합금융 종합업적평가 대상’, ‘산림조합 경영성과 대상’, ‘산림조합 특화사업 최우수상’, ‘지도사업 우수조합’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

우리 고양시산림조합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 자체조직인 ‘산사랑 숲체험회’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과 연계하여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공유하며 한 식구처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임업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어 함께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모든 회원님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산림조합 조합장 김보연





청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화 준

존경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화준입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업기술회보』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되어 더없이 반갑습니다. 기세등등하게 호령하던 동장군과 함께 시작한 2023년이 어느덧 계절의 시곗바늘에 따라 흘러, 올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의 웃음과 함성으로 들판은 녹색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5천 년 역사 속 묵묵히 민족의 경제와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청주농협은 농촌형에서 도시형 농협으로 변모를 마친 복지농협입니다. 소수의 전업농 조합원과 농업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높은 자가소비형농업을 하는 다수의 조합원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도시형 농협이며, 조합원 80%가 6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원로조합원 복지사업이 절실한 복지농협입니다.

지난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서의 미래계획을 큰 맥락으로 양분한다면, 고령화되어가는 농민조합원의 복지사업과 도농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도시농협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농협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당선 후 취임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면서 원로조합원님들의 복지사업과, 도시농협이 농촌농협과 어떻게 상생하여야 하는지 넓은 시야를 얻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진정으로 거두나가는 청주농협의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켜온 위대한 저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회원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우리 농촌의 들판을 적시고 비옥하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부심으로 가득함을 느끼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화 준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 승 업

**존경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임·회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주원예농협의 20대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전주시 및 완주군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원예농협은 1959년 전주배협동조합으로 창립한 이래 협동조합의 정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금융 및 유통사업을 통하여 농업인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농협은 현재 본점을 비롯한 11개의 신용지점과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영농자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주 및 완주 조합원들의 영농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합 창립 이후 6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농업인과 함께 극복하여 오늘날 우뚝 선 농협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전주원예농협의 미래 100년을 향해 모두 다 같이 풍요롭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협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임·회원 여러분!**

그동안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문화 농촌건설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주원예농협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을 비롯한 농업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 승 업





삼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 신 학

### 존경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이 넘치고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에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되어 제16대 삼례농업협동조합장에 취임하여 사랑하는 삼례와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업기술회보』를 통해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삼례농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명시된 농협의 목적을 명심하고, 농협다운 삼례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5대 조합장 시절 성과를 계승해나가고 선거에서 약속한 사항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조합원님들의 복지와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삼례농협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영농작업 효율화로 농가 수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와 농한기 소득 창출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확대 개장하여 삼례 우수 농산물 홍보와 판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입니다. 농협은 그 생명을 연장하고 미래를 밝히기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삼례농협이 최고의 자산이 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 신 학



장수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연수

올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의 영예를 안겨주신 조합원 여러분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안부 인사드립니다.

저는 1993년 우리 협회에 통일회원으로 참여하였고, 현재 제2대 장수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9년 선거 당선으로 제1대 조합장을 맡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수사과영농조합(1995년 3월 11일 설립)의 긴 역사를 안고 장수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의 토대로 탈바꿈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750여 명의 장수 관내 조합원으로 구성된 우리 조합은 인근 무주와 진안을 포함하는 사업권역 확대로 조합 사업 확장·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 단일품목으로 일궈낸 조직과 역사 그리고 ‘장수사과’ 브랜드만큼 깊은 생산 노하우를 지닌 조합원님들이 계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셨던 고 송재득 선생께서 사과 불모지였던 이곳 장수를 사과 고장의 고장이자 메카로 부각해내신 거룩한 교지를 받들어 장수사과농업을 최고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경영을 통해 믿음을 주는 조합, 조합원들이 필요한 조합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다음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1. **교육의 차별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현장 중심에서 실행
2. **유통의 혁신;** 유통사업단 공동대응으로 높은 가격 지지 유도
3. **농자재 공급 서비스;** 농가 편의성 최적화 서비스(찾아가는 서비스)
4. **업무의 투명성 확립;** 경영 전반의 투명성 보장 및 신뢰성 확립
5. **인력시장 운영 구축;** 총체적인 인력 수급 관리 및 작업별 필요인원 충당

이를 위해 새로 주어진 임기 4년 그리고 오늘을 알차게 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소비자 기호식품인 과수 소비 위축, 1인 가구 확산, 수입 과일 증대로 국산 과일 소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 등 시장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과수산업에 커진 적신호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과일이기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있기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조합원의 이익 창출로 연계되어 행복한 조합원, 잘사는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는 농촌의 복지 향상과 농업인의 권익 신장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더욱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장수사과가 전국 제일, 세계 제일의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보답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협회 회원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장수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연수





김해시산림조합  
조합장 서 환 익

반갑습니다. 김해시산림조합 조합장 서환익입니다.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해시산림조합장에 당선된 후 올해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되어 다시금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1962년 설립인가 후 국토의 산지 자원화에 앞장서 왔으며, 1996년 상호금융 점포를 개설하여 산주를 위한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일해 왔습니다. 1999년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0년 김해시산림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2001년 김해시 외동에 신축청사를 건립하여 산림조합원과 임업인들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고 김해시의 임야를 잘 가꾸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해 봄철 나무시장을 운영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품질 좋은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산불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앞장서고, 봄·가을철 산불 집중 발생 시기에는 김해시산림조합 직원들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크고 작은 산불 발생 시에는 직접 직원들과 산불 진화에 적극 동참하는 등 현재도 김해시산림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김해시 산불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산림조합만의 특별한 사업으로 체험형 목재박물관인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공예 체험과 진귀한 목재 전시품 관람 등을 온 가족이 함께하시며 치유의 시간을 누리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 김해시산림조합은 6천5백여 명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중심으로, 전국 산림조합 중에서도 우수조합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이는 여·수신 증대로 흑자경영을 이뤄내고,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발전을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매년 인재육성자금기탁, 불우이웃돕기, 임가일손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금융고객이 참여하는 김해SJ산악회를 발족하여 산행과 산지정화활동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조합의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해 고배당과 이용 고배당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매해 조합원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대학교 입학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로조합원의 생신 때 선물을 드려 연세가 많으신 조합원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과 임직원 여러분!**

농업과 임업의 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산에서도 농업을 할 수 있고, 농지에서도 임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임업이 목표를 공유하여 한마음으로 농산촌을 발전시켜 풍요와 번영의 기반을 다지는 성취와 보람을 함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시산림조합 조합장 서 환 익



양산시산림조합  
조합장 김 경 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덕분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양산시산림조합장에 당선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회장 김경우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2천여 양산시산림조합원님들과 저를 믿고 끝까지 도움을 주시고 응원해주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이영휘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3년간 정관과 규정상 권한 없는 일부 임원들이 불법과 탈법으로 협회를 운영해 왔으나 김삼식 회장직무대행과 현 이영휘 회장님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협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많은 회원님들의 힘이 모여 협회가 안정을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협회는 더욱 공고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60여 년 역사의 우리 협회가 희망찬 10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영휘 회장님과 회원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회원님들께서 감시와 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협회는 일부 임원들의 소유가 아닌 회원 모두가 주인입니다.

**새롭고 희망찬 100년!**

모든 농업인단체가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농업인단체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배님들께서 피땀 흘려 만들어 오신 60여 년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훌륭한 조직임에 틀림이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합니다. 저도 은혜를 잊지 않고 협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풍년이 들어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당선의 영광을 안겨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산시산림조합 조합장 김 경 우



# 살고, 살아갈 농업 · 농촌을 깨닫게 한 교육

- 2023년도 제1기 전직창업농 성공을 위한 귀농탐색과정(4월 10~21일)



제1기 전직창업농 성공을 위한  
귀농탐색과정 수료생  
김 용 운

나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아버지는 소를 키우며 계단논에 쇠똥을 나르고 소의 힘을 빌려 쟁기질을 하셨다. 힘든 집안일과 농사일에 대한 기억으로 농촌은 내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차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큰 꿈이고 희망이었다. 꾸준히 사업 역량을 쌓고 기술을 개발하여 회사를 차렸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로 2021년 말 폐업을 하게 되었다.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 텃밭과 베란다에 채소나 물고기 등을 키우며 사업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 연구하고 실험하며 자료로 남겨둔 것을 토대로 귀농하여 사업하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로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제1기 전직창업농 성공을 위한 귀농탐색과정’을 수강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신 강사들로 강의가 짜여 있어 만족스러웠고 강의 내용 역시 알차고 좋았다.



스마트팜 벤치마킹 현장교육(경기 여주 피쉬파머스농장 김홍재 대표)



농촌주민 갈등관리/귀농사기피해 예방교육(성여경 강사)

이기범 강사님(특용약용작물 재배·가공·판매 등 현장교육)의 “무엇을 심던 5년 후를 보고 심어라!”, 성여경 강사님(농촌주민 갈등관리/귀농사기 피해예방)의 “꿈을 꾸기만 하면 안 된다. 꿈을 향해 가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다. 특히 좋았던 점은 농촌에 대한 사탕발림이 아닌 실상을 들려 줬기 때문에 와 닿았다는 것이다. 농촌으로 무조건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독려하는 강의가 아니었다. 싫다고 하면서도 꾸준히 농촌의 실상을 체득하고 미래 먹거리를 공부해 온 나는 시골 사람들의 성향과 마을공동체가 외지인을 대하는 모습 등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는 것을 보며 교육 전반에 신뢰가 갔다.

1박 2일 현장교육 때는 교육생들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도 있었다. “땅은 사났는데 아이디어가 없어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책자금을 받아도 기술이 없어서 어떤 작물을 농사지어야 할지 걱정이다” 등 교육 동기들과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대화를 나누며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사업상 상생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60시간의 교육과정을 겪은 나는 ‘망설이지 말고 교육은 듣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릴 적의 가난이 싫었던 것이지, 농업과 농촌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덕분에 깨달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고 운영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용약용작물 재배·가공·판매 등 현장교육  
(충남 공주 황금약초농장 이기범 대표)



교육수료식

## 농림축산식품부

### 주정용,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14만 톤 특별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5월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하여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하여 2023년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하였고,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 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하여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하여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 톤에서 92만 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금번 정부양곡 특별처분으로 2023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량도 당초 149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14만 톤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금번 특별처분을 통해 ①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 원 절감, ② 사료용과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 원 절감(사료 283, 주정 335), ③ 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와 함께 ④ 과잉물량 일부 해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류협회와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양곡 특별처분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 농림지 동시 발생 돌발해충 협업 방제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경·산림지(농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돌발해충 일제 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농촌진흥청) 농림지 동시 발생 돌발해충 예찰·방제 총괄 (산림청) 산림지역 돌발해충 예찰·방제 총괄

이번 일제 방제 기간 중 각 도와 특·광역시에서는 돌발해충 월동란(겨울을 난 곤충의 알)의 부화 상황과 기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동방제 기간’을 정하고, 시·군·구 단위로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방제를 추진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돌발해충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선녀벌레의 천적을 방사하고 방제 효과를 점검하는 시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해충이나 외래해충을 뜻한다.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가 대표적이다.

돌발해충은 방제 영역을 벗어난 인근으로 옮겨간 뒤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으므로, 농경지와 산림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방제를 통해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돌발해충 예방관찰(예찰)·방제 협의회’를 운영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예찰, 협업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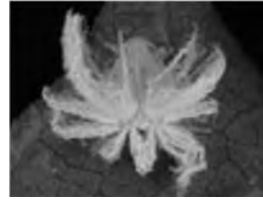
아울러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 산림지의 기주



꽃매미 약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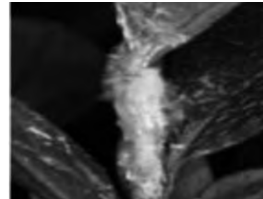
꽃매미 성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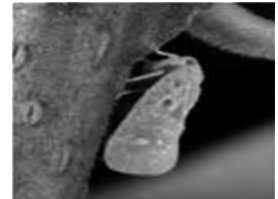
갈색날개매미충 약충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집단



미국선녀벌레 약충



미국선녀벌레 성충

식물 예찰과 방제, 붉은불개미 발생지와 발생 우려 지역 합동 예찰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계기관이 농림지 돌발해충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운영하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지역별 병해충 발생 현황, 약제 살포 기간, 살포 약제 목록 등 포괄적인 정보를 추가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관계 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돌발해충을 포함한 주요 해충 예찰과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H농협

# 농번기 일손 돕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 활발히 전개 - 기업·기관 임직원 참여로 지역사회 부족한 일손 돕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지역사회공헌부는 시민과 함께 영농철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5월 23일 밝혔다.



먼저, 5월 17일에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토마토 결순을 제거하고 집게걸이를 활용한 모종 고정작업을 도왔다. 같은 날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 임직원 봉사단 50여 명이 참여하여 포도나무 결순을 따고 과원을 정리했다.



이어서 5월 18일 광명도시공사 임직원 20여 명이 경기 광명시 시설재배 농가를 방문해 토마토 결순 제거와 비닐하우스 정비 작업을 진행했으며, 5월 20일에는 kt ds 임직원 및 가족 80여 명과 kt그룹희망나눔재단이 경기 포천시 사과농가에서 열매를 숙아내며 일손을 도왔다.



김민자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장은 “농협은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은 지난 5월 12일 경희대학교와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도 연간 4만 명의 일반인 참여를 목표로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 ‘꿀벌 귀환 캠페인’으로 ESG경영 확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꿀벌 귀환 캠페인’을 확대 진행한다고 5월 11일 밝혔다. ‘꿀벌 귀환 캠페인’은 농작물 작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꿀벌 실종 문제를 인식하고, 꿀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꿀벌의 건강한 서식지 조성을 위해 공사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국민 모금과 밀원수 식재에 이어 올해는 캠페인 내용을 확대하여 ▲ 화분 매개용 벌통 임대 ▲ 밀원수 식재 ▲ 미래세대 교육 등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화분 매개 전용 벌통 임대와 밀원수 식재·분양을 위해 나주배원예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벌통 인공수분이 어려운 취약농가(고령농 등)를 대상으로 250여 통의 벌통 임대를 지원하였다. 또한, ‘식목일 행사’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하여 전국 각지 청사 내 1천여 그루의 밀원수를 식재하고, 공사 내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꿀벌의 가치에 대해 알리는 교육 등을 하여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해나가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꿀벌 실종 이슈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꿀벌 귀환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나주배원예농협과 함께 5월 20일 ‘세계 꿀벌의 날’을 맞이하여 밀원수 묘목을 식재하고, 2~3년 육성 후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무료 분양할 예정이다.

## 뿌리의 노래

김성순 통일회원(한국포도회 명예회장)

어떤 씨앗이든지 땅에 떨어지면  
먼저 뿌리부터 내린다  
콩나물보다도 더 연한 흰 뿌리가  
날카롭게 지심을 향해 뚫고 들어간다

깜깜 어둡고  
돌같이 단단하고  
습기 차고 때로는 바짝 마른 땅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전진한다  
후회 없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일초도 쉬임 없이 싸우며 나아간다  
그는 참 위대한 고행자(苦行者)  
- 모든 고난을 숙명처럼 잘도 참고 살아가기에

그는 참 위대한 침잠자(沈潛者)  
-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암흑 속에서도  
자기 책임을 다하기에

그는 참 위대한 철인(哲人)  
- 내가 깊이 뿌리박지 못하면 지상의 성장도  
개화도 결실도 다 허사인 것을 잘 알기에

그는 비웃는다  
허영과 공명에 들뜬 무리를

그는 불쌍히 여긴다  
오늘만 알고 내일을 모르는 자를

그는 안타깝게 여긴다  
돈만 알고 일의 보람을 모르는 자를

그는 눈물 흘린다  
관념의 껍질만 보고  
참 속 생명의 뜻을 모르는 자를

저 창공에 높이 자란 거목(巨木)되어  
탐스런 꽃과 열매를 꿈꾸는 자여  
고요히 눈을 감고  
대지(大地)의 뿌리의 노래를 배우자

우리 협회 이영휘 회장,  
농식품부 개최 '농업인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



우리 협회 이영휘 회장이 3월 17일(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개최한 '농업인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과 주요 농업인단체장 26인이 참석하여 '2023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단체별 의견 등을 상호 소통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청년농·스마트팜·그린바이오·푸드테크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 쌀값 안정을 위한 역대 최대 물량(90만 톤) 시장 격리, 비료·사료·난방비 부담완화 지원, 지역소멸·난개발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법 국회 통과 등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농업인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하며 농업인단체의 격려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영휘 회장은 이날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한 교육 확대·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농업전문대학 내 실화와 추가 설치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농

촌 인력 수급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농가에 인건비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검토를 주문하였다.

우리 협회 이영휘 회장, 한국농축산  
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우리 협회 이영휘 회장이 3월 30일(목) 축산회관에서 개최된 한국농축산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 이영휘 회장을 포함한 회원 단체장 22인이 참석하였으며 제11대 임원진 구성을 의결하였다. 임기는 2023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이며, 회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감사에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과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을 선임하였다. 운영위원 중 부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이승호 회장에게 위임키로 하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향후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신 통상 이슈, 쌀값 및 축산물 가격 안정 문제, 농업예산 확충 문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대 문제, 국내외 농업인력의 안정적 확보 문제,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문제, 청년농 육성 문제, 영농기 가뭄 대책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대정부 농정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10대 집행부

업무 및 회계 결산 승인 및 제11대 집행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였다.

### 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가 4월 19일(수) 농업기술진흥관 협회장실에서 개최되었다. 협회 현안과 부서별 업무 보고를 하였고, 차기 이사회 안건사항과 향후 개최할 제6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제167차 이사회



제167차 이사회가 5월 3일(수) 농업기술진흥관에서 개최되었다. 재적이사 29인 중 20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다. 심의사항으로 제1호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개정(안)'을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출석 이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제2호 '창립 60주년 및 제6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추진위원 선정(안)'을 상정하여 토론 후 '추진위원은 '현 이사 전체와

감사'로 구성하고 향후 조치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는 제안 안건으로 원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이어 기타토의 후 보고사항으로 가전리 현장답사 촬영 영상 시청과 부서별 보고사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사회를 마쳤다.

### 2023년도 제1기 전직창업 성공을 위한 귀농탐색과정 교육 실시

우리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으로 '제1기 전직창업 성공을 위한 귀농탐색과정'을 실시하였다. 4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1박 10일간 4050세대 귀농희망자 위주의 25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진흥관과 농촌 현장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귀농희망자들의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의 이해에서부터 현장 교육까지 이론·체험·실습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2기 교육은 7월경, 3기 교육은 9월경 실시할 예정이다.

### 2023년도 귀촌성공준비과정 교육 실시

우리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으로 '귀촌성공준비과정'을 실시하였다. 5월 17(수)부터 26일(금)까지 1박 8일간 귀촌 희망자 위주의 22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진흥관과 농촌 현장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귀촌 성공에 필요한 농촌 주택 정보에서부터 귀촌 농가 체험까지 귀촌 준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론·체험·실습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 강원도연합회 농민대학 및 선도농가 워크숍



강원도연합회(연합회장 박성현)는 2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홍천농촌문화터미널에서 농민대학 및 선도농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가가치 활성화 사례(강원도연합회 부연합회장 정재현)', '농업회사법인(주)바농 기업사업 소개와 (주)바농 식량작물 재배업 시설 견학(홍천군 대표회원 장선재)' 등을 진행하였다.

### 경상북도연합회 농민대학 및 선도농가 워크숍



경상북도연합회(연합회장 최병우)는 3월 9일(목)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대학 및 선도농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포도재

배의 신기술(사인머스켓)(경상북도연합회 부연합회장 최정호)' 강의와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 인천광역시연합회 농민대학 및 선도농가 워크숍

인천광역시연합회(연합회장 김인석)는 3월 23일(목) 인천 중구농협 대강당에서 농민대학 및 선도농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업·농촌의 비전(전 인천광역시연합회장 홍순일)' 강의와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 서울특별시연합회 정기총회



서울특별시연합회(연합회장 이만섭)는 2월 20일(월)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2년 결산보고(안) 및 '23년 사업계획예산(안)과 임원선출 변경(안) 논의를 하고 협회발전방안 간담회 등을 하였으며,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울산광역시연합회 회무위원회

울산광역시연합회(연합회장 김석암)는 2월 22일(수) 일성복집에서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 결산보고(안) 및 '23년 사업계획예산(안) 논의와 협회발전방안 간담회 등을 하였으며,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라남도연합회 회무위원회



전라남도연합회(연합회장 나호주)는 2월 24일(금) 연합회사무실에서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 결산보고(안) 및 '23년 사업계획예산(안) 논의와 협회발전방안 간담회 등을 하였으며,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부산·경상남도연합회 정기총회



부산·경상남도연합회(연합회장 윤성찬)는 2월 25일(토) 목장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

여 '22년 결산보고(안) 및 '23년 사업계획예산(안) 논의와 협회발전방안 간담회 등을 하였으며,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무위원회, 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연합회장 김필환)는 2월 27일(월)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회관에서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 결산보고(안) 및 '23년 사업계획예산(안) 논의와 협회발전방안 간담회 등을 하였으며,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3월 23일(목) 동승호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안) 논의와 감사패 수여 등을 하였다.

### 경기도연합회 회무위원회, 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



경기도연합회(연합회장 권흥주)는 3월 28일(화) 고양시산림조합 산림생태문화센터에서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 행사 계획(안)'과 농민대학 계획(안) 보고, 간담회 등을 하였고,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3일(수)~4일(목) 일산문화광장에서 '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 판매와 문화 행사 등으로 도농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 경북 영천시지회 정기총회 및 농민대학



경북 영천시지회(지회장 김종대)는 1월 30일(월)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농민대학을 개최하여 '22년 결산보고(안)', '23년 사업계획예산(안)', 임원선출변경(안) 논의와 '글로벌 시대 농업인의 역할과 행복한 농업인이 되는 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장 윤봉식)' 강의 등을 하였고,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북 김천시지회 정기총회

경북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성수)는 2월 21일(화) 청산생오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2년 결산보고(안)' 및 '23년 사업계획예산(안)'과 임원선출변경(안) 논의, 농업인 기술과 복지 문제에 대한 간담회 등을 하였다.

### 울산 중구지회 월례회의, 농민대학



울산 중구지회(지회장 류형심)는 3월 14일(화) 일성복지관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회원 산행 계획과 농민대학 개최 계획(안) 논의 등을 하였다. 4월 15일(토) 김영춘농장에서 농민대학을 개최하여 '도시민의 텃밭 가꾸기(전 울산시농업기술센터 과장 신기원)' 강의와 간담회 등을 하였다.

### 울산 북구지회 정기총회

울산 북구지회(지회장 윤영규)는 3월 16일(목) 돈참새미마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2년 결산보고(안)' 및 '23년 사업계획예산(안)'과 임원선출변경(안) 논의, 간담회 등을 하였다.

### 경남 함양군지회 농민대학 및 임시총회



경남 함양군지회(지회장 서원홍)는 3월 31일 (금)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대학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인간의 건강 유지를 위한 농법(농촌개발원 부위원장 신병규)' 강의와 '22년 결산보고(안), '23년 사업계획예산(안), 임원선출변경(안) 논의 등을 하였고,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기 평택시지회 정기총회 및 농민대학

경기 평택시지회(지회장 김현수)는 4월 3일 (월) 육팩트식당에서 정기총회 및 농민대학을 개최하여 '평택 농업의 현재와 미래(평택시농업기술센터 과장 이우진)' 강의와 임원선출변경(안) 논의 등을 하였고, 본회 이영휘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의견 경청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울산 남구지회 월례회의

울산 남구지회(지회장 김정숙)는 4월 10일 (월) 갈비구락부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선진지 견학 계획(안), 하계농민대학 개최 계획(안) 논의 등을 하였다.

### 충북 진천군지회 농민대학



충북 진천군지회(지회장 양재호)는 4월 19일 (수)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대학을 개최하여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前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양현모)' 강의와 벼 직파 시범단지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 우리 협회 강원도연합회 임원 및 회원, 강원도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협회 임원으로 선출

우리 협회 강원도연합회 임원과 회원이 3월 14일(화) 횡성 웰리힐리파크 골드홀에서 열린 강원도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협회 정기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강원도연합회 박성현 회장이 회장에, 강원도연합회 김영철 회원이 부회장에, 강원도연합회 조재영 사무처장과 김봉현 부연합회장이 감사에 선출되었다. 박성현 회장이 온라인사업단장을, 강원도연합회 최기종 횡성군지회장이 오프라인사업단장을, 강원도연합회 정재현 평창군지회장이 수출사업단장을, 김영철 회원이 안테나숍사업단장을 맡게 되었다. 강원도연합회 회원들은 6차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힘써왔다.

## 우리 협회 이영희 회장, 지역 장학생 발굴하여 장학금 전달



우리 협회 이영희 회장이 싱글벙글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4월 1일(토)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20여 년간 장학금을 기탁해온 이영희 회장은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싱글벙글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신남순 재단 이사, 김보연 고양시산림조합장과 이영철 전무이사, 장학생과 가족 등이 참석하였으며, 대학생 7명, 고등학생 5명에게 총 95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영희 회장은 장학생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꾸준한 학습과 노력으로 슬기롭게 성장하여 꿈을 이루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강신원(41년생/경기 연천/전 이사/통일회원)
- 고성근(43년생/강원 원주/전 지회장/통일회원)

##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본회 법인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 개설

우리 협회의 보다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본회 법인 휴대폰(010-7912-6972)이 5월 18일(목) 개설되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협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받고 있으며, 아래 QR코드로도 본회 카카오톡 계정과 친구 추가, 채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임직원 간 본회 운영 주요 현안과 소식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카카오톡에 '농기협 임직원 소통방'을 5월 19일(금)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본회 계정 QR코드〉

## 새 식구 명단 (2023. 1. 1. ~ 3. 31.)

## 서울특별시

동심회원 김윤자(서울 동대문)

## 경기도

동심회원 조계원(경기 연천)

동심회원 박유동(경기 평택)

동심회원 김경수(경기 파주)

## 강원도

동심회원 신동호(강원 고성)

동심회원 김상덕(강원 인제)

## 충청북도

동심회원 문일용(충북 옥천)

동심회원 배운봉(충북 영동)

동심회원 조보행(충북 청주)

## 충청남도

동심회원 이동규(충남 서산)

동심회원 안일섭(충남 서산)

동심회원 김홍귀(충남 서산)

## 전라북도

동심회원 안재팔(전북 고창)

동심회원 최승태(전북 남원)

동심회원 김훈(전북 익산)

## 전라남도

동심회원 이희주(전남 나주)

동심회원 이극(전남 나주)

동심회원 최도찬(전남 나주)

동심회원 김삼성(전남 나주)

## 대구광역시

동심회원 현병업(대구 수성)

## 경상북도

동심회원 정태용(경북 김천)

동심회원 김재영(경북 김천)

동심회원 이수근(경북 김천)

동심회원 박성수(경북 김천)

동심회원 김종철(경북 김천)

동심회원 신희철(경북 김천)

동심회원 김혜진(경북 김천)

동심회원 최헌종(경북 김천)

동심회원 김용만(경북 김천)

동심회원 서범석(경북 김천)

동심회원 전진원(경북 김천)

동심회원 윤흥근(경북 김천)

동심회원 전명희(경북 김천)

동심회원 최순열(경북 김천)

동심회원 김성수(경북 김천)

동심회원 진태권(경북 김천)

동심회원 장영희(경북 영천)

동심회원 박상길(경북 영천)

동심회원 류지화(경북 영천)

동심회원 최유호(경북 영천)

동심회원 김치길(경북 영천)

동심회원 구영애(경북 영천)

## 경상남도

동심회원 김홍수(경남 창원)

## 제주특별자치도

동심회원 정명주(제주 제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동심회원은 평생회원을, 정회원은 연회원을 의미합니다.

\* 동심회원은 회원신청서 및 “농업인 자격 증명서류” 제출 후 100,000원을 납부하시면 평생회원입니다.

\* 정회원은 회원신청서 및 “농업인 자격 증명서류” 제출 후 입회비 5,000원과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특별회비 명단 (2023. 1. 1. ~ 3. 31.)

## 경기도

박문규(경기 부천)

100,000

## 전라남도

김대현(전남 무안)

10,000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정회원 연회비 납부 명단 (2023. 1. 1. ~ 3. 31.)

### 서울특별시

이규은(서울 중랑)

### 경기도

이시종(경기 양평)

### 충청북도

연규송(충북 증평)

임태정(충북 증평)

연제홍(충북 증평)

연양홍(충북 증평)

김종인(충북 증평)

김상복(충북 증평)

유영돈(충북 증평)

정진영(충북 증평)

연준홍(충북 증평)

양관직(충북 증평)

연재형(충북 증평)

이금노(충북 증평)

안병출(충북 증평)

이완재(충북 증평)

신해수(충북 진천)

김재환(충북 진천)

라근봉(충북 진천)

이재선(충북 진천)

조택제(충북 진천)

신동엽(충북 진천)

이관구(충북 진천)

홍용기(충북 진천)

박재민(충북 진천)

임병수(충북 진천)

박일부(충북 진천)

신대식(충북 진천)

김현중(충북 진천)

김종세(충북 진천)

유현열(충북 진천)

박봉수(충북 진천)

연회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금계좌\_ 농협 1394-01-0005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정(연)회원은 2년 계속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정회원으로서의 자격 상실

## 협회 회원 가입을 위한 “농업인자격증명 제출 서류 변경”

### 기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농업인확인서 중 하나 제출



### 변경

농업경영체등록서, 농업인확인서  
중 하나 제출

기존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되므로  
농업인 인정 기준과 동일하여 농업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농지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4월 15일부터 개편된  
농지원부(현 '농지대장')는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농지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움

# 농업기술회보

21세기 우리농업·농촌·농민을 선도하는 정보지

60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독자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2023년 2호

| 제60권 2호 통권 593호 |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곳곳하게 맥을 이어온 60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 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선도농가 여러분처럼, 농업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농업동향, 농업기술, 도·농 교류, 독자 여러분의 각종 소식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 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회원의 목소리

E-mail : kafa794@chol.com

전화 : 02-794-7270

팩스 : 02-792-697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3-13(이촌동 301-87) 농업기술진흥관 3층  
우) 04422

### 농업기술회보 2023년 2호

창간 : 1964년 7월 25일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라-제528호  
(1965년 6월 19일)

용산 라00168호

발행인 : 이영취

인쇄일 : 2023년 5월

발행일 : 2023년 6월

발행처 :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주소 : 우) 044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3-13(이촌동 301-87)

전화 : 02) 794-7270

팩스 : 02) 792-6972

홈페이지 : www.kafarmer.or.kr

이메일 : kafa794@chol.com

디자인 : 농경과원에(주)

인쇄처 : 현성문화인쇄사

『농업기술회보』는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현안, 신기술, 최신 정보 등을 전해드리는 회보이므로 주위 많은 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회보의 광고 내용은 협회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2023년도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으로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합니다.

### 1. 청년창업농 성공을 위한 귀농탐색과정

- 기 간 : 6월 19~30일 / 1박 10일(60시간)
- 대상자 : 2030세대(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귀농희망자  
 ※ 교육인원의 20% 미만은 타 연령층 및 기정착 귀농·귀촌인도 참가할 수 있음
- 자부담 : 20만 원 / 1인당 총 교육비 약 90만 원 중 70만 원(약 78%)은 지원임

### 2. 전직창업농 성공을 위한 귀농탐색과정

- 기 간 : (2기) 7월 24일~8월 4일, (3기) 9월 4~15일 / 기수별 1박 10일(60시간)
- 대상자 : 4050세대(1963년 1월 1일~1982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귀농희망자  
 ※ 교육인원의 20% 미만은 타 연령층 및 기정착 귀농·귀촌인도 참가할 수 있음
- 자부담 : 20만 원 / 1인당 총 교육비 약 90만 원 중 70만 원(약 78%)은 지원임

## 2023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체험 외 분야)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으로 도농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합니다.

### 1. 치유농업을 활용한 도농교류

- 기 간 : (1기) 6월경, (2기) 10월경 / 1박 2일
- 장 소 : (1기) 인제 냇강마을, (2기) 제천 산야초마을
- 대상자 : 농업·농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읍·면 지역 거주자는 제외)
- 자부담 : 약 5만 원

### 2.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용한 도농교류

- 기 간 : 8월경 / 1박 2일
- 장 소 : 충주 내포긴들마을
- 대상자 : 농업·농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읍·면 지역 거주자는 제외)
- 자부담 : 약 5만 원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회 교육연수부에 문의 바랍니다.  
 ※ 일정이 확정되면 본회 홈페이지(www.kafarmer.or.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